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0 시작에 앞서

대상별 활용 방법

앞쪽에 있는 문제의 정답을 어떻게든 정하세요. 정답 근거까지 스스로 설명해보신 후, 뒤쪽의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풀어 보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해보고, 스스로에게 설명도 못하면서, 냅다 해설부터 보며 '음~ 이게 맞지~ 고려치 고려치 나도 이렇게 생각했었어~' 이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실전과 같이 맞히고 틀러가면서 본인에게 남겨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되어 내 실력이 느는 겁니다.**

중학생·고1

해당 자료로 본인이 고등 국어 '상위권'에 들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5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고, 정답 근거를 대략적으로라도 '설명'해낼 수 있다면, 고등학교 내신·모의고사에서 상위권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풀었는데 거의 다 틀린다거나, 해설이 도대체가 뭘 말인지 모르겠고, 나오는 개념어조차도 생소하다면, 국어 공부량을 늘리고 공부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고2

해당 자료를 풀어보며, 본인이 그간 국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꾸준히, 꼼꼼히, 잘, 해왔는지를 점검 가능합니다. 100%에 가까운 정답률을 보이고, 이유까지도 얼추 설명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상위권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념어가 부족하여 문제를 틀린다면, 주관식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힘들고 어색하다든지, 해설지의 좋은 독해·풀이 습관은 잘 안되고 안 좋은 독해·풀이 습관만 많다든지 등 약점이 보이면, 이를 개선할 것을 목표로 국어 학습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고3·N수

해당 자료로 국어 기초개념 및 기초습관이 잘 잡혀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100%에 가까운 정답률을 보이고, 이유까지도 막힘없이 설명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수능에서 상위권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간간이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해설을 토대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약점들이 수능 당일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아니 매우 높은 확률로, 아니 반드시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늘 긴장하고 자극받을 수 있도록, 혹은 내가 잘 해오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4 비문학

[지문]

우리는 소비를 할 때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지출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기도 하고, 대출을 받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많이 지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적금에 가입해 미래에 있을 지출에 대비하거나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소비는 여러 기간에 걸친 자금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저축과 대출 등의 금융 행위와 그것의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는 이자율은 소비 계획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자율이 r 인 경우 현재 100만 원의 가치는, 미래 $(1 + r) \times 100$ 만 원'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 이를 역으로 보면, 미래 $(1 + r) \times 100$ 만 원'은 현재 100만 원의 가치와 같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미래의 특정 금액의 가치는 이자율을 매개로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 이때 현재 가치란 어떤 금액이 현재 지니는 가치를 말한다.

[문제] 진위판단

1.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 지출액의 현재가치가 상승한다.
- 정답 : (참 / 거짓)
2.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미래 소비 지출액의 현재가치가 상승한다.
- 정답 : (참 / 거짓)
3.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상환해야 하는 대출액이 감소한다.
- 정답 : (참 / 거짓)
4. 이자율이 상승하면, 미래 소비에 대한 현재 소비의 상대적 가치는 하락한다.
- 정답 : (참 / 거짓)

※ 2019년 고2 3월 모의고사 21 ~ 25번 비문학 지문 참조

#34 정답 및 해설

출제요소 : 진위판단, 확장적 사고, 반대적 사고 그리고 수학

[정답]

1. [정답] : 거짓

- '현재'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니까 '동일'하겠죠. (선택지-선택지 동어반복) 상승하니까 다 상승할거라는 초당적 사고에서 벗어나서야 합니다.

2. [정답] : 거짓

- 지문의 예시를 선택지 풀이에 활용했어야 합니다. 현재 소비 지출액을 지문처럼 100만 원으로 두고, 이와 동일한 미래 소비 지출액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100만 원이겠네요 (좋은 풀이 습관 : 확장적 사고)
- 그러면 미래 소비 지출액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100만 원'을 '(1+r)'로 나눈 $\frac{100}{(1+r)}$ 이겠네요. 이항이죠. (좋은 풀이 습관 : 반대적 사고, 응용력) r이 분모에 있는데 r이 커지면, 전체적으로는 작아지겠죠. 미래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는 하락합니다.

★ 곱셈·나눗셈 이항은 기초 상식입니다. 분모가 커지면, 분수 전체는 작아지는 것 역시 수학입니다. 여러분 국어 잘하고 싶으시면, 수학도 잘 하셔야 합니다. 기초적인 수학 못하면 국어 고득점 절대 못합니다. 작년 6평 이중차분법 평행, 작년 9평 선호도·적합도 계산, 수능 L그래프 비례vs0.75제곱 비례 다 수학적 사고가 기본 바탕에 있어야 '막힘없이' 풀 수 있었습니다. 국어에서 '막힘없이' 풀기 위해, 기초적인 수학적 사고 문제가 나올 때마다 몇 번 씩 훈련해두세요.

3. [정답] : 거짓

- 이거 '감소'가 틀렸다 '증가'가 맞다고 해서 풀면 잘못 푸 겁니다.
- 이자율이 변했다고 대출액(원금)을 변화시키면 안 되겠죠. 크건 그냥 깡패아냐?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가 상승하는 것이지 대출금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초 경제 상식?) 영끌한 사람들 안그래도 대출 어자 때문에 힘든데 대출금까지 올리면... (문제 풀이와 쓸데없는 생각이 들면 즉시 멈추고 문제로 돌아가기) 자, 웃기게 표현했지만 중요했던 건, 1문단의 '대출금vs이자'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문에서 분명 대출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표현했으니, 선택지를 풀 때도 이를 구분했어야 합니다. 대출액을 보면서 '이자 아닌가?' (좋은 풀이 습관 : 반대적 사고) 라는 생각을 해보는 습관을 들입니다.

4. [정답] : 참

- 지문의 예시를 선택지 풀이에 활용했어야 합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미래 소비를 '(1 + r) X 100만 원', 현재 소비는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좋은 풀이 습관 : 확장적 사고), 둘의 가치가 같은 상황에서 r이 증가하면 미래 소비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현재 소비 가치는 하락하겠네요. (좋은 풀이 습관 : 반대적 사고, 응용력)

+ 만약 당신이, 2번 '현재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미래 소비 지출액의 현재가치'와 4번 '미래 소비에 대한 현재 소비의 상대적 가치'는 사실상 같은 말(동어반복)인데, 상승 하락만 다른 거니까, 2번이 거짓이니 4번이 참이겠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정답을 결정했다면, 당신은 1%입니다. '동어반복'이라는 좋은 독해 습관이 바탕이 되어, 거기에 뛰어난 수학적 통찰력이 더해져, 확장적·반대적 사고를 하며 문제를 풀고 있는 1~2등급들마저도 시간상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바탕으로 한 이런 미친 센스를 매순간, 모든 문제에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상적이며 비현실적이죠. 하지만 국어에서의 좋은 습관들과 더불어 다른 과목 공부도 성실히 해나간다면, 수능 당일 이런 센스를 한 5번은 발휘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과목에서 어느 문제에서 발휘할지는 모르지만, 압도적으로 이기는 사람들은 해내는 것들입니다.

#62 문학 2023 고2 3모 '고전시가' 31번

[보기]

[노계가]의 작가는 전란을 체험한 후 강호에 은거하며 태평성대를 추구하며, 일관되고 영속적인 가치를 지향한다. 비록 작가의 지향을 방해하는 일시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이 지향은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미래로 지속성을 갖고 이어진다.

[지문]

지팡이 짚고 바람 씌며 좌우를 돌아보니
누대의 맑은 경치 아마도 깨끗하구나.

㉠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푸른 물과 긴 하늘이 한빛이 되었거든

물가에 갈매기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르네.

㉡ 바위 위 산꽃은 수놓은 병풍 되었고

시냇가 버들은 초록 장막 되었는데,

좋은 날 좋은 경치 나 혼자 거느리고

㉢ 꽃피는 시절 허송하지 말리라 하고

아이 불러 하는 말, 이 깊은 산속에서 해산물을 불쏘냐.

㉣ 살진 고사리, 향기로운 당귀를 돼지고기, 사슴고기 섞어서

크나큰 바구니에 흠족히 담아두고

붕어회에도 넣어, 꿩 섞어 먹음직하게 구워지거든

술동이의 맑은 술을 술잔에 가득 부어

한잔, 또 한잔 취토록 먹은 후에,

㉤ 복숭아꽃 붉은 비 되어 취한 낮에 뿌리는데

남시터 넓은 돌을 높이 베고 누우니

무회씨 때 사람인가, 갈천씨 때 백성*인가.

태평성대를 다시 보는가 생각노라.

이 힘이 누구 힘인가, 성은이 아니신가.

강호에 물러난들 임금 걱정이야 어느 때에 잊을까.

때때로 머리 들어 북극성 바라보고

남모르는 눈물을 하늘 끝에서 흘리도다.

평생에 품은 뜻을 빕니다, 하느님이시여.

마르고 닳도록 우리 임금 만세를 누리소서.

태평한 세상에 삼대일월* 비추소서.

영원무궁토록 전란을 없애소서.

밭 갈고 샘 파서 격양가*를 부르게 하소서.

이 몸은 이 강산풍월에 늙을 줄을 모르도다.

- 박인로, 「노계가」-

* 무회씨 때 사람, 갈천씨 때 백성 : 중국 상고시대 전설상의 제왕인 무회씨와 갈천씨 때의 태평성대의 사람.

* 삼대일월 : 중국에서 왕도 정치가 행해졌던 하·은·주 시대.

* 격양가 : 중국 요 임금 때 늙은 농부가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치면서 천하가 태평하다며 불렀다는 노래.

[문제] 지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명령형 어미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문답의 방식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시선의 이동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다채롭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⑤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62 정답 및 해설

[보기]

[노계가]의 작가는 전란을 체험한 후 강호에 은거하며 태평성대를 추구하며, 일관되고 영속적인 가치를 지향한다. 비록 작가의 지향을 방해하는 일시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이 지향은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미래로 지속성을 갖고 이어진다.

[지문]

지팡이 짚고 바람 씌며 좌우를 돌아보니
 누대의 맑은 경치 아마도 깨끗하구나.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푸른 물과 긴 하늘이 한빛이 되었거든
 물가에 갈매기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르네.
 ㉡바위 위 산꽃은 수놓은 병풍 되었고
 시냇가 버들은 초록 장막 되었는데,
 좋은 날 좋은 경치 나 혼자 거느리고
 ㉢꽃피는 시절 허송하지 말리라 하고
 아이 불러 하는 말, 이 깊은 산속에서 해산물을 볼쏘냐.
 ㉣살진 고사리, 향기로운 당귀를 돼지고기, 사슴고기 섞어서
 크나큰 바구니에 흠족히 담아두고
 봉어회에도 넣어, 썩 섞어 먹음직하게 구워지거든
 술동이의 맑은 술을 술잔에 가득 부어
 한잔, 또 한잔 취토록 먹은 후에,
 ㉤복숭아꽃 붉은 비 되어 취한 날에 뿌리는데
 뉘시터 넓은 돌을 높이 베고 누우니
 무회씨 때 사람인가, 갈천씨 때 백성*인가.
 태평성대를 다시 보는가 생각노라.
 이 힘이 누구 힘인가, 성은이 아니신가.
 강호에 물러난들 임금 걱정이야 어느 때에 잊을까.
 때때로 머리 들어 북극성 바라보고
 남모르는 눈물을 하늘 끝에서 흘리도다.
 평생에 품은 뜻을 빕니다, 하느님이시여.
 마르고 닳도록 우리 임금 만세를 누리소서.
 태평한 세상에 삼대일월* 비추소서.
 영원무궁토록 전란을 없애소서.
 밭 갈고 샘 파서 격양가*를 부르게 하소서.
 이 몸은 이 강산풍월에 늙을 줄을 모르도다.

- 박인로, 「노계가」-

[현장독해]

- 전란 / 강호은거, 태평성대
- 일관, 영속
- 방해하는 일시적 요소
- 과거현재미래로 지속성 = 영속 [지문-지문 동어반복]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을 위한 키워드 파악]
- 강호은거, 태평성대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 ㉠강호 풍경 좋아. 다 하나 됨
 [좋은 독해 습관 : 주관식 풀이. 밑줄 의미 생각해보며 읽기]
- 자연물 갈매기도 좋아 보여.
- ㉡자연물을 인간 세상 사물에 빗대어 표현
- 나 혼자 = 강호은거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 ㉢태평성대. '허송' = 허+송 = 헛되이 보낸다
 [좋은 독해 습관 : 쪼개서 원형파악 + 한자어 어휘력]
 = 허송세월 [좋은 독해 습관 : 비슷한 단어 떠올리는 연상력]
- 산이니까 해산물을 없다네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고쳐 의도 파악]
- ㉣ 해산물 없으니까 고기 먹겠다네. 배터지겠네.
- 봉어는...? 산계곡에서 잡았다는건가 여튼 술먹으며 태평성대.
- ㉤ 복숭아꽃이 비처럼 내린다 태평성대
- 단어 설명에 대놓고 '태평성대'
 [좋은 독해 습관 : *표시는 반드시 읽어 출제자 의도 파악]
- 임금 은혜 어 타어명에 한번 나오셔야저 어서오고(관습적)
- 강호에 물러난들 = 강호은거 + 잊지 않겠다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고쳐 의도 파악]
- 북극성 = 임금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 크차 눈물도 한번 흘려주셔야저(관습적)
- 평생에 품은 뜻 = 일관, 영속, 지속성. [보기-지문 동어반복]
- 태평한 세상 = 태평성대
- 전란은 과거에 일어났는데, 영원히 없애달라니 [보기]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미래로 지속성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 격양가 = 태평성대, 강산풍월 = 강호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 + 태평성대라는 '지향을 방해하는 일시적 요소'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설명서인 [보기]가 틀릴 리는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임금 걱정'이 잠깐 들었다는 거려나?

[정답] ①

① 명령형 어미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이상적 풀이

: 동음이의어 '-소서6' :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하십시오할 자리에 쓰여, 정중한 부탁이나 기원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하십시오'체는 상대높임법의 아주높임 격식체의 명령형.

+ '상대높임법 종결어미표' 아직도 안 외운 학생 없죠?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그걸 외워서 백지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쓸 수 있어야 대한민국 1%하는 겁니다. 격식·비격식, 아주·예사·두루, 평서·의문·명령·청유·감탄, -하십시오·하십시오·세·자, 예시·비문 다 외우기.

★ 현실적 풀이

- 아니 근데요. '~소서'가 '하십시오'라는 상대높임법 중 아주높임의 격식체 중에서도 명령형 종결어미 '-하십시오' 대신 쓰일 수 있다는 얘기를, 전에 들어봤고 틀려봤고 기억하고 있는 학생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냐구요, 심지어 '하늘'이라는 높은 존재에게 어떻게 '명령'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선택지를 정답의 확신성이 높은 채로 ①번 맞다 하고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 (가)가 틀렸다. 그러니 일단 다음 선지로 넘어갔다. 근데 다른 선택지 다 봤더니 다 틀려서, 그나마 어거 짝었다. 이게 현실적 풀이죠.

② 문답의 방식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 이상적 풀이 : '이 힘이 누구 힘인가, 성은이 아니신가' 문답법 있지만, 이걸로 현실 비판 안한다.

- 현실적 풀이 : 위 구절이 떠오르거나 보이지 않았더라도, '현실 비판 없다, 주제의식 자체가 태평성대 영원하길 기원인데 무슨 현실 비판이나' 틀리다 [좋은 풀이 습관 : 주제의식(태산)에서 벗어난 것은 적어도 정답은 아니다]

③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다수론 : 대조 방식으로 태도 변화 드러낸 것 없다. 처음부터 쪽 태평성대 좋다고 한다.

- 소수론 : 태도변화 있는데? 강호은거해서 태평성대라고 생각하면서 술 먹고 놀다가 -> 임금 걱정에 눈물 흘리다가 -> 다시 태평성대 추구. 좋다가 걱정했다가 대조적인데, 심지어 한 번 더 태평성대 추구로 돌아오는데 태도변화도 맞지.

- 반박 : 대조도 있고, 태도 변화도 있다고 치더라도, 대조를 통해서 태도 변화 드러냈다고 보기는 힘들다

[좋은 풀이 습관 : 하나의 선택지를 앞진술과 뒷진술로 디테일하게 쪼개서 그 둘의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 재반박 : 대조가 단순히 구절 표현 하나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지? 상황적 대조도 대조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2니까 넘어가자. 교3 수능 때는 논란 없도록 잘 낼 것어다

④ 시선의 이동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다채롭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

- '물보고 하늘보고 물가 갈매기보고 산꽃보고 병풍이라고 하고 버들보고 초록 장막이라고 하고, 복숭아꽃 붉은 비처럼 내리는 것도 보고' 시선의 이동을 통해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다채롭게 드러내고 있죠. 너무 맞습니다. 근데 드러내고 있지 '않다'고 하니 틀린 진술이죠.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 끝에 부정어구 주의. 선택지를 끝까지 꼼꼼하게 봐서 별 안 받기]

⑤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초월적 공간 없습니다. [좋은 풀이 습관 :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틀린 것이다]

- '하늘'은 기원의 대상이지 공간이 아닙니다.

- 화자가 현재 은거하는 자연은 현실 공간이죠. 현실이 아무리 좋고 태평한 세상(지문)이라고 하더라도(상대적 변화), 그게 초월적 공간(절대적 차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풀이 습관 :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엄밀히 구분한다]

★ 좋은 풀이 습관 : 실수를 돌이키는 매커니즘. ①②③④가 다 틀려도 ⑤번도 틀릴 수 있다. 선택지를 객관적으로 보자 ★

38% 학생들이 ⑤번이 맞는 진술이라고 답해서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문제를 풀 당시, 본인의 사고 과정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①②③④번이 대충 다 틀려 보이니까, ⑤번이 맞겠거니하고 적당히 생각해서 답을 찍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속 깊은 무의식 속에서 '명석한 나는 ①②③④에서 실수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답은 ⑤번으로 정해져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심을 억누르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⑤번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⑤번이 틀리다고 할 수 있어야만, '어 그러면 앞에 맞는 선택지가 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혹시 '소서'가 겉보기에도 상황적으로도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명령형 어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 남들 다 틀리는 문제를 나만 맞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좋은 풀이 습관 : 잘 안 풀리는 문제는, 한번만 더 고민해보고, 안되면 일단 넘어가서 시간과 멘탈과 페이스를 지킨다 ★

이 문제 틀려도 됩니다. 이 문제 틀려도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집착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스스로의 멘탈을 박살내고, 페이스를 잃었다면 이번 시험 망쳤을 겁니다. 수학처럼, 안 풀리는 건 넘어가서 받을 점수부터 받는 지혜 갖추기.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안국어

#65 멘토링

남들이 안할 때, 내가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본인이 수험생이라면,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공부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남들이 주말이라 좀 더 자도 된다고 할 때,
평소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수업을 잡아서 강제로라도 주말 오전에 공부하던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더라구요.

학원에서 주말은 좀 늦게 와도 된다는니,
안와도 출책 안하는 자율학습 타임이라느니,
그런다고 진짜 안시다면 안 됩니다.

주말에, 비 몰아치고 눈 쏟아지고 날씨 안 좋은 날,
'에이~이런 날은 좀 늦을 수도 있죠~' 하는 날에도,
기어코, 어떻게든, 자습실 와서
절반도 넘게 텅텅 비어있는 자습실 가운데
혼자 조용히 자리 지키고 앉아서 공부했던 학생들.
주말에 추가질문으로 저 머리 싸매게 만들고,
저한테 응원과자 받아가던 그런 학생들이,
그 해 수능으로 만족할만한 대학에 가서
현재에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끝난 당일 저녁,
시험에 체력을 다 쓴 나머지 지치고 힘들어서 더는 머리가 안 굴러갈 때에도,
머리 끄꿍 싸매며 전 과목 오답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맞힐 수 있었을까 고민하고,
왜 이딴 걸 실수했냐며 자책하고,
'쌤은 도대체 어떻게 풀었냐, 내 논리와 근거도 맞지 않냐'고 따지고 질문하던 그 친구들.
자기 목표보다 좋은 대학 갔습니다.

'에이 시험 이제 막 끝났잖아요, 어차피 머릿도 안 굴러가는데 좀 쉬죠~'하면서
채점도 안한 시험지 책상에 내팽개치고
술마시러 가고 피시방가고,
머리 아프다고 조퇴찍고 집 가던 친구들.
그 친구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소식조차 모릅니다.

물론 수험생활 중에도 네트워킹과 스트레스 관리는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공부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함께 즐기는 것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내 퍼포먼스가 일정 수준이상 나올 때 얘기입니다.

내 성적이 바닥을 기고, 내가 만족할만한 수준도 아니며,
내가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는데,
매일같이 술 먹고 함께 놀면서 네트워킹 백날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친했던 사이일지라도,
누구는 대학 잘 가고 누구는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러면,
다 깨지게 되더라고요.
반면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았어도,
같이 좋은 대학가면 친해지기도 하구요.

네트워킹 아무리 열심히 챙기던 사람도,
성적, 성과, 대학 이런 퍼포먼스가 계속 안나오면 결국 주위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퍼포먼스가 돼야 네트워킹도 되는 겁니다.

공부의 세계에서,
네트워킹은 퍼포먼스를 이끌지 못합니다.
성적은,
남들이 공부 안할 때 내가 더 공부해야만
오르는 냉정한 것이기 때문이며,
남들이 공부할 때 나도 공부하는 건,
성적 유지일 뿐 상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퍼포먼스는 네트워킹을 이끌 수 있습니다.
남들이 네트워킹 챙긴다고 퍼포먼스에 집중하지 못할 때,
그때 본인이 퍼포먼스에 투자하여 성과를 낸다면,
네트워킹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좋은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주더라고요.

남들이 안할 때,
내가 해야만,
남들보다, 이전의 나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트워킹 아예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친구가 당장 조금은 서운해 할지라도,
할 걸 하고 놀라는 겁니다.

**남들이 힘들다고 안할 때, 이걸 못한다고 포기할 때,
'이때 내가 하면 되겠구나.'라는 마인드를 가지세요.**

이게 바로 결국 마지막에 잘 되고,
마지막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만드는
좋은 습관입니다.

#66 문법

[문제]

- 성훈이는 무엇이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경향이 있다
-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유서를 수도 없이 고치셨습니다.

[문제] 진위판단

1. 밑줄은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쓰는 1인칭 재귀 대명사이다.

정답 : (참 / 거짓)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66 정답 및 해설

[정답] : 거짓

- 선택지 진술 다 맞습니다. 딱 하나 '1인칭' 빼고요. '3인칭'입니다.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 노하우에 낚이지 않을 정도로 예민해지셔야 합니다.

+ 2번 '당신'은 앞뒤 맥락에 따라서 '2인칭'일 수도 있으므로 틀렸다고까지 생각하셨으면 더 좋습니다. 같은 문장이더라도, '듣는 이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로 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이든 손자든, 누군가의 유서를 강제로 고칠 수도 있을 테니까요.(법적으로는 안되는지 몰라도)

[출제요소] : 너무나도 맞아 보이는 진술 사이에 틀린 표현 썩 짧게 집어넣기에 주의

#67 문학

[지문]

[앞부분의 줄거리] 남원에 사는 최척과 옥영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약속하지만, 최척은 전쟁 중 의병으로 징집되어 혼인 날짜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나 옥영의 어머니는 고을의 부자 양생과 옥영을 억지로 혼인시키고자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옥영은 밤에 어머니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며 말했다.

“최생의 거취는 의병장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최생이 자기 마음대로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생의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곧바로 언약을 저버리시니 이보다 옳지 못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제 의지를 꺾으려 하신다면 저는 죽어도 다른 곳으로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하늘같은 어머니께서도 몰라주시는데 남들이 어떻게 제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어머니가 말했다.

“너는 어찌 이렇듯 심하게 고집을 부리느냐? 아아 어린 네가 무엇을 알겠느냐? 너는 마땅히 이 어미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 조위한, 「최척전」-

[문제] 진위판단

1. 옥영은 어머니와 타협하여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 한다.

정답 : (참 / 거짓)

2. 옥영은 어머니와 절충하여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 한다.

정답 : (참 / 거짓)

3. 옥영의 어머니는 끈대다.

정답 : (참 / 거짓)

※ 2013년 고2 3월 모의고사 31~33번 문학 지문 참조

#67 정답 및 해설

[지문]

[앞부분의 줄거리] 남원에 사는 최척과 옥영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약속하지만, 최척은 전쟁 중 의병으로 징집되어 혼인 날짜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나 옥영의 어머니는 고을의 부자 양생과 옥영을 억지로 혼인시키고자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옥영은 밤에 어머니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며 말했다.

“최생의 거취는 의병장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최생이 자기 마음대로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생의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곧바로 언약을 저버리시니 이보다 옳지 못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제 의지를 꺾으려 하신다면 저는 죽어도 다른 곳으로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하늘같은 어머니께서도 몰라주시는데 남들이 어떻게 제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어머니가 말했다.

“너는 어찌 이렇듯 심하게 고집을 부리느냐? 아아 어린 네가 무엇을 알겠느냐? 너는 마땅히 이 어미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 조위한, 「최척전」-

[문제] 진위판단

1. 옥영은 어머니와 타협하여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 한다.

정답 : (참 / 거짓)

2. 옥영은 어머니와 절충하여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 한다.

정답 : (참 / 거짓)

3. 옥영의 어머니는 끈대다.

정답 : (참 / 거짓)

3. 나의 말이 맞다고 해서, 나와 반대되는 말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다.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꼭 적인 것은 아니다.

옥영과 옥영 어머니의 생각이 서로 반대라고 해서 서로가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옥영을 철부지 어린애로 몰아붙여셔도, 옥영의 어머니를 끈대로 몰아붙여셔도 안 됩니다. 옥영이 최척을 사랑하는 나름의 방식, 옥영의 어머니가 옥영을 사랑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정답을 '무조건 참이지~'라고 판단하셨다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독해]

- 최척 옥영 사랑

- 전쟁

- 억지로 혼인

- 눈물로 호소 -> 옥영은 싫은 듯

- 언약 = 결혼을 약속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앞부분 줄거리) 동어반복]

- 이보다 옳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어디 없다. 옳지 못한 사람이다.

- 어떻게 제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 헤아리지 못한다.

- 어찌 이렇듯 심하게 고집을 부리느냐? = 부리지 마

- 어린 네가 무엇을 알겠느냐? = 넌 아무것도 모른다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이해한다]

[정답 및 출제요소] : 타협, 절충 개념어 잡기

1. 거짓 2. 거짓

- 타협하거나 절충하지 않습니다. '고집'부립니다. 옥영의 대사 뒤에 어머니의 대사에서도 나옵니다. 옥영이 최척과 결혼하고자하는 자신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양보하거나 조절하지 않습니다.

- 타협(妥協) :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함. 양보를 조금이라도 해야 타협입니다.

- 절충(折衷) : 서로 다른 사물이나 의견, 관점 따위를 알맞게 조절하여 서로 잘 어울리게 함. 두 의견에 대한 조절이 있고, 그러면서 두 의견의 입장 일부가 들어가야 절충입니다.

※ 2013년 고2 3월 모의고사 31~33번 문학 지문 참조

#68 비문학

[지문]

‘사람에 의한 지배’는 결국 군주나 소수의 귀족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근대 법치주의자들은 사람에게 의한 지배를 ‘법의 지배’로 바꾸려 했다. 이들은 기존의 법이란 군주의 자의적 명령에 불과하다고 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시민의 명령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법치주의의 핵심적 요소로 보고 법을 제정, 집행, 판결하는 자를 각각 분리하였다. 의회가 법을 제정하고, 행정은 이러한 법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며, 재판도 법에 따라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법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이처럼 초창기 법치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확립된 법에 따른 법의 제정과 적용을 중시했기 때문에, 법의 형식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내용적 측면은 문제 삼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나타났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 법의 내용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어떤 내용의 법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이런 법치관은 의도적으로 인권을 짓밟는 비민주적·권위적 정권도 표방할 수 있다. 비민주적·권위적 정부가 기존의 법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감행하고자 할 경우 법 형식을 갖춰 의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 합법성을 갖춘 법의 지배이지 좋은 내용의 법의 지배가 아닌 것이다.

이 법치관에서는 법의 내용적 요소를 도외시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모두 정당한 법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예를 들어 외국 여행을 금지하는 법이 형식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엄격히 집행된다면 이러한 상태는 일반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에 의한 지배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법치주의를 이처럼 형식적으로만 파악하는 태도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낳는다. 외국 여행을 금지하는 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서 모든 국민들을 공정하게 대우한 셈이므로 정의로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법을 사회 구성원들이 정의롭다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법치주의에 도달하기 어렵다. 흔히 법의 절차적 정당성만을 강조한, 법의 공정한 집행이 이처럼 명백하게 부정의를 낳는 경우를 ‘형식적 법치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합리적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요소만으로는 ‘법의 지배’의 타당성을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 또한 인간 존엄과 정의를 지향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제] 위 글의 논지를 따를 때, ‘형식적 법치의 역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의견은?

[정답]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68 정답 및 해설

[지문]

‘사람에 의한 지배’는 결국 군주나 소수의 귀족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근대 법치주의자들은 사람에게 의한 지배를 ‘법의 지배’로 바꾸려 했다. 이들은 기존의 법이란 군주의 자의적 명령에 불과하다고 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시민의 명령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법치주의의 핵심적 요소로 보고 법을 제정, 집행, 판결하는 자를 각각 분리하였다. 의회가 법을 제정하고, 행정은 이러한 법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며, 재판도 법에 따라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법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이처럼 초창기 법치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확립된 법에 따른 법의 제정과 적용을 중시했기 때문에, 법의 형식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내용적 측면은 문제 삼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나타났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 법의 내용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어떤 내용의 법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이런 법치관은 의도적으로 인권을 짓밟는 비민주적·권위적 정권도 표방할 수 있다. 비민주적·권위적 정부가 기존의 법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감행하고자 할 경우 법 형식을 갖춰 의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 합법성을 갖춘 법의 지배이지 좋은 내용의 법의 지배가 아닌 것이다.

이 법치관에서는 법의 내용적 요소를 도외시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모두 정당한 법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예를 들어 외국 여행을 금지하는 법이 형식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엄격히 집행된다면 이러한 상태는 일반적이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에 의한 지배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법치주의를 이처럼 형식적으로만 파악하는 태도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낳는다. 외국 여행을 금지하는 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서 모든 국민들을 공평하게 대우한 셈이므로 정의로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법을 사회 구성원들이 정의롭다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법치주의에 도달하기 어렵다. 흔히 법의 절차적 정당성만을 강조한, 법의 공평한 집행이 이처럼 명백하게 부정의를 낳는 경우를 ‘형식적 법치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합리적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요소만으로는 ‘법의 지배’의 타당성을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 또한 인간 존엄과 정의를 지향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장독해] : 색칠공부

[좋은 독해 습관 : 비슷한 표현끼리 같은 그룹으로 묶는다]

- 사람에게 의한 지배 : A, 군주나 소수의 귀족 보호 : A
- 근대 법치주의자들 : B
- 법의 지배 : B
- 군주의 자의적 명령 : A
-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시민의 명령 : B = 객관적, 합리적

- 의회 = 제정, 행정 = 권력을 행사, 집행, 재판 = 판결

- 절차적 정당성 : B
- 형식적 측면 : B
- 내용적 측면 : C
- 형식적 요건 : B
- 그 법의 내용 : C

- 인권을 짓밟는 : D
- 비민주적, 권위적 정부 : D
- 법 형식을 갖춰 : B
- 형식적 합법성 : B
- 좋은 내용의 법의 지배 : C

- 외국여행 금지 : D
- 형식적 절차 : B

- 형식적으로만 파악하는 태도 : B

- 정의로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 : D
- 정의롭다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 : D
- 적법한 절차 : B
- 완전한 법치주의 : C
- 법의 절차적 정당성만을 강조, 법의 공평한 집행 : B
- 명백하게 부정의 : D, 형식적 법치(B)의 역설 : D
- 합리적 절차 : B
- 타당성 : C
- 형식적 법치주의 : B
- 법의 목적과 내용 또한 인간 존엄과 정의 지향 : C

[문제] 위 글의 논지를 따를 때, '형식적 법치의 역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의견은?

[정답] 법이 정의로운 목적과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지닐 수 있도록 제정해야 한다.

[출제요소] 동어반복-그룹핑-그룹 간 공통점 차이점 찾아가면서 읽기 : ABCD그룹 색칠공부

[출제요소] 주관식으로 풀기. [문제]를 보고 선택지를 바로 보지 않고,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기

[출제요소] 부정의 부정 주의

- 형식적 법치 = B / **형식적 법치의 역설 = D** / **형식적 법치의 역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 = C**

: 지문 독해 시에 이처럼 비슷한 의미인데 표현만 다른 것들을 연결지어 가며 읽으면 좋습니다.

: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B, B의 역설, B의 역설에서 벗어나는'처럼 부정의 부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아 정답은 C의 내용 즉, 법의 내용이 좋고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해야한다(C)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고

: 선택지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표현을 찾아보면 정답이 쉽게 보일 것입니다.

아래 사례를 읽을 때에도 ABCD 그룹핑으로 읽어보면 좋습니다.

[사례 1]
A국은 '옴'과 '멘옴'이라는 신분적 구별이 있다. '옴'은 자본력과 문화적 능력을 바탕으로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A국은 입법·행정·사법권을 분립시키고 있으나 이 기관들은 '옴'에게 독점되고 있다. 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옴'은 '멘옴'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멘옴'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 '옴'에게 독점, 옴'들은 A그룹(사람에 의한 지배, 군주나 소수의 귀족 보호)

[사례 2]
B국의 '갑'은 추운 겨울 밤 이웃 사람인 '을'이 피를 흘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긴급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을'을 방치**하고 집에 갔다. 결국 '을'은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B국의 사법부는,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에도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에도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은 행위 : D**

- 처벌하는 법이 없다, 갑'에게 무죄 : B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69 문법

[지문]

1. 손가락
2. 큰집
3. 깜짝출연

[문제] 쪼개서 원형파악

- 위 단어들을 품사·형태소 단위, 어근·접사 등 본인의 모든 문법지식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디테일하게 쪼개서 원형파악해보시고, 단일어인지 파생어인지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69 정답 및 해설

[정답]

1. 손가락 : 통사적 합성명사

- 손 : 명사 어근
- 가락 : 명사 어근

2. 큰집 : 통사적 합성명사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 큰 : 용언의 어간 '크-'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이 결합한 용언의 관형사형 '큰'
- 집 : 명사 어근 '집'

3. 깜짝출연 : 비통사적 합성명사 (부사+명사)

- 깜짝 : 부사
- 출연 : 명사

#70 문학

[보기]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설시조는 형식 면에서 평시조와 달리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졌다. 내용 면에서는 실생활 소재들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주로 다루었는데 솔직함, 해학성, 애정을 서슴없이 표현하려는 대담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며 비유, 상징 등 다양한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지문]

님이 오마 흐거늘 저녁밥을 일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우희 치드라 안자 *이수로 가액하고
오논가 가논가 건년산 바라보니 *거머횃들 셔 잇거늘 저야 님이
로다 보션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곰빅님빅 님빅곰
빅 *천방지방 지방천방 즈 디 므른 디 굴희지 말고 *위렁총창 건
너가셔 *정옛말 흐려 하고 겹눈을 흘긔 보니 상년 칠월 사흔날
굴가 벽긴 *주추리 삼대 솔드리도 날 소겨다

모쳐라 밤일식 망정 흥여 낮이런들 님 우일 번흐괘라.

*이수로 가액하고 : 이마에 손을 얹고

*거머횃들 : 검은빛과 흰빛이 뒤섞인

*곰빅님빅 : 옆치락뒤치락 급히 구는 모양.

*천방지방 : 허둥지둥

*위렁총창 : 급하게 달리는 소리

*정옛말 : 정이 있는 말

*주추리 삼대 : 씨를 받느라고 밭머리에 세워 둔 삼의 줄기

[문제] 진위판단

1.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션', '신' 등의 소재는 임의 소중함을 상징한다.

정답 : (참 / 거짓)

※ 2017년 고1 6월 모의고사 43~45번 문학 지문 참조

#70 정답 및 해설

[보기]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설시조는 형식 면에서 평시조와 달리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졌다. 내용 면에서는 실생활 소재들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주로 다루었는데 솔직함, 해학성, 애정을 서슴없이 표현하려는 대담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며 비유, 상징 등 다양한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지문]

님이 오마 흐거늘 저녁밥을 일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우희 치드라 안자 *이수로 가액하고
오논가 가논가 건년산 바라보니 *거머횃들 셔 잇거늘 저야 님이
로다 보션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곰빅님빅 님빅곰
빅 *천방지방 지방천방 즈 디 므른 디 굴희지 말고 *위렁총창 건
너가셔 *정옛말 흐려 하고 겹눈을 흘긔 보니 상년 칠월 사흔날
굴가 벽긴 *주추리 삼대 솔드리도 날 소겨다

모쳐라 밤일식 망정 형여 낮이런들 님 우일 번흐과라.

- *이수로 가액하고 : 이마에 손을 얹고
- *거머횃들 : 검은빛과 흰빛이 뒤섞인
- *곰빅님빅 : 옆치락뒤치락 급히 구는 모양.
- *천방지방 : 허둥지둥
- *위렁총창 : 급하게 달리는 소리
- *정옛말 : 정이 있는 말
- *주추리 삼대 : 씨를 받느라고 받머리에 세워 둔 삼의 줄기

[문제] 진위판단

1.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션', '신' 등의 소재는 임의 소중함을 상징한다.

정답 : (참 / 거짓)

[현장독해]

- 중장 길어짐.
- 실생활 소재
- 솔직함, 해학성, 애정 표현 대담성
- 비유, 상징 표현 생동감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을 위한 키워드 파악]

[지문]

- 임 오니까 저녁밥도 일찍 먹음

- 임 오나봐. 신발도 고 맨발로 급하게 가네. 실생활 소재(보기)
- 급하게 달려감
- 중장 길어짐(보기)

- 주추리 삼대를 임이라고 착각해서 뛰어간거네(상황파악)

[좋은 독해 습관 : 숲'도' 보기(상황파악)]

- 밤이라서 다행이지 낮이었으면 남들 웃길뻔. 해학성(보기)

[좋은 독해 습관 : 지문-보기 동어반복]

[정답] 거짓

- 지문을 읽으면서 '보션, 신'은 실생활 소재(보기)라는 생각했다면(지문-보기 동어반복), 임인줄 알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뛰어갔는데 임이 아니었다는 걸 파악했다면(상황 파악), 이 진술을 보면서 어색한 느낌, 썩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느낌을 바탕으로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소재가 임의 소중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를 '통해' 임의 소중함을 드러낸다는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보기-지문 동어반복'과 '상황 파악'이라는 좋은 독해 습관이 바탕으로 되어야 선택지 진위판단을 할 때 출제자의 함정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좋은 독해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71 비문학

[지문]

진화생물학이 설명해야 하는 중심 문제는 생물 개체의 적응에 관한 것이다. 적응은 자연선택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선택은 진화생물학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자연선택은 근본적으로 복제자에 작용한다. 복제자란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구조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복제자는 유전자가 유일하다. 유전자들은 동맹을 결성하여 자신의 운반자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운반자를 통해 생존 경쟁을 한다. 운반자는 유전자들의 번식을 돕는 매개체로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생물 개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유전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운반자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자신의 복제를 도모한다. 성적 매력, 신진대사의 효율성 등과 같은 운반자의 적응적 형질을 강화시키는 유전자는 다른 경쟁 유전자보다 더 자주 복제될 것이다. 어떤 유전자는 운반자를 둘러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환경을 조종하거나 통제하여 자신의 복제 기회를 넓히기도 한다. 심지어 운반자의 적응도를 감소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이른바 '무법 유전자'도 있다. 유전자는 이렇듯 다양한 전략의 중심에 있으며, 이는 자연선택이 근본적으로 운반자가 아닌 복제자에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진화는 장구한 세월 동안 자연선택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된 소(小)진화적 사건의 끊임없는 축적이며,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생명 체계가 형성되었다. 예외적으로,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진화도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동물 계통은 신체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동물 계통에 비해 진화에 의한 변화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계통에 따라 편차를 보이는 이러한 '진화 가능성' 자체가 때로는 선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선택은 유전자보다 상위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문제] 다음 중 밑줄 예시에 해당하는 것 모두 고르기

- ① 뇌충은 개미의 뇌 속에 침투한다. 이후 뇌충의 유전자는 화학 물질을 분비해 개미로 하여금 풀잎 위에서 쉬도록 개미의 행동을 변화시켜 소에게 먹히도록 만든다. 뇌충의 궁극적 숙주는 소다.
- ② 아프리카인의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겼다. 이 돌연변이 유전자들끼리 쌍을 이루면 악성 빈혈이 유발되지만, 정상 유전자와 쌍을 이루면 치명적인 말라리아에 대해 저항성을 갖게 된다.
- ③ 수컷을 결정하는 Y염색체 상의 어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해, Y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X염색체를 가진 정자보다 운동성이 더 커졌다.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정자가 더 많이 수정되어 수컷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성비의 균형이 깨져 짝짓기가 힘들게 되었다.

[정답] ()

※ 2007년 MDEET 비문학 19 ~ 21번 참조

#71 정답 및 해설

[지문]

진화생물학이 설명해야 하는 중심 문제는 생물 개체의 적응에 관한 것이다. 적응은 자연선택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선택은 진화생물학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자연선택은 근본적으로 복제자에 작용한다. 복제자란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구조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복제자는 유전자가 유일하다. 유전자들은 동맹을 결성하여 자신의 운반자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운반자를 통해 생존 경쟁을 한다. 운반자는 유전자들의 번식을 돕는 매개체로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생물 개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유전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운반자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자신의 복제를 도모한다. 성적 매력, 신진대사의 효율성 등과 같은 운반자의 적응적 형질을 강화시키는 유전자는 다른 경쟁 유전자보다 더 자주 복제될 것이다. 어떤 유전자는 운반자를 둘러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환경을 조종하거나 통제하여 자신의 복제 기회를 넓히기도 한다. 심지어 운반자의 적응도를 감소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이른바 '무법 유전자'도 있다. 유전자는 이렇듯 다양한 전략의 중심에 있으며, 이는 자연선택이 근본적으로 운반자가 아닌 복제자에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진화는 장구한 세월 동안 자연선택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된 소(小)진화적 사건의 끊임없는 축적이며,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생명 체계가 형성되었다. 예외적으로,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진화도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동물 계통은 신체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동물 계통에 비해 진화에 의한 변화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계통에 따라 편차를 보이는 이러한 '진화 가능성' 자체가 때로는 선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선택은 유전자보다 상위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현장독해]

- 진화생물학, 적응
- 자연선택으로 '만' [좋은 독해 습관 : 한정표현 주의]
 - > 특별한 지위
- 생물학적 복제자는 유전자가 유일
- 동맹 -> 운반자 -> 생존 경쟁
- 운반자 = 매개체 [좋은 독해 습관 : 사소한 동어반복 체크]
- 운반자의 적응적 형질 강화
- 환경을 조정하거나 통제(A). 아까 적응적 형질 강화(B)하는 애 량은 다르네 [좋은 독해 습관 : 차이가 있는 그룹 구분짓기]
 - vs 운반자의 적응도 감소 = 무법 유전자(C)
 - [좋은 독해 습관 : 차이가 있는 그룹 구분짓기]
 - 자연선택은 운반자가 아닌 복제자에 작용 = 복제자가 중요!
 - [좋은 독해 습관 : 핵심 파악]
- 자연선택으로 조금씩 진화한 게 축적되어 진화(ㄱ)
- vs 신체 구조적 특성으로 변화가 더 쉬울 수도(L)
- [좋은 독해 습관 : 차이가 있는 그룹 구분짓기]
- '진화 가능성'조차도 자연선택의 대상
- [좋은 독해 습관 : 핵심 파악]

※ 2007년 MDEET 비문학 19 ~ 21번 참조

[정답] ① [출제요소]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동어반복->ABC그룹 구분->그룹 간 비교

- ① 뇌충은 개미의 뇌 속에 침투한다. 이후 뇌충의 유전자는 화학 물질을 분비해 개미로 하여금 풀잎 위에서 쉬도록 개미의 행동을 변화시켜 소에게 먹히도록 만든다. 뇌충의 궁극적 숙주는 소다.
- 풀잎 위(선택지) = 운반자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지문), 궁극적 숙주인 소에게 먹혀(선택지) = 복제 기회를 넓힘(지문). A그룹 정답.
- ② 아프리카인의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겼다. 이 돌연변이 유전자들끼리 쌍을 이루면 악성 빈혈이 유발되지만, 정상 유전자와 쌍을 이루면 치명적인 말라리아에 대해 저항성을 갖게 된다.
- 말라리아에 대해 저항성(선택지) = 운반자(아프리카인)의 적응적 형질 강화. B그룹
- ③ 수컷을 결정하는 Y염색체 상의 어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해, Y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X염색체를 가진 정자보다 운동성이 더 커졌다.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정자가 더 많이 수정되어 수컷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성비의 균형이 깨져 짝짓기가 힘들게 되었다.
- 성비의 균형이 깨져 짝짓기가 힘들게(선택지) = 운반자의 적응도를 감소시키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무법 유전자(지문). C그룹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72 문법

[지문]

1. 내일 고객 세 분이 방문하실 예정이다
2. 저 분이 바로 진회장님이야
3. 빵을 정확하게 셋으로 분하여 나누어줄 것이다
4. 나는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5. 말만 했다 뿐이지 진짜 할 생각은 아니었다
6.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문제] 쪼개서 원형파악

- 밑줄 친 단어의 품사는 무엇인가요? 의미와 기능까지 최대한 디테일하게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게 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72 정답 및 해설

[정답]

1. **분** : (단위성) 의존명사 = 숫자나 단위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의존명사

- 수관형사 '세'의 수식을 받는, 수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 높이는 사람을 세는 단위

2. **분** : (보편성) 의존명사 = 여러 가지 문장성분으로 두루 쓰이는 의존명사

- 지시관형사 '저'의 수식을 받는,
- 사람을 높여서 이르는 말

3. **분** : 명사

- 전체를 몇으로 나눈 부분을 의미하는
- + 분하다 : 타동사, (사람이 사물을 몇으로) 따로 나누어 갈라내다 + -하다 :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4. **분** : 명사

-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의미하는
- + 분하다 : 형용사, 「...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화나고 원통하다 + -하다 :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5. **뿐** : (서술성) 의존명사 = 서술어로 쓰이는 의존명사

- ('-다 뿐이지' 구성으로 쓰여)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6. **뿐** : 보조사

-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73 문학

[지문]

[앞부분 줄거리] 암행어사가 되어 춘향이 있는 남원으로 돌아온 이몽룡은 학정을 일삼아 백성들을 괴롭힌 본관사또를 잡아들인다.

“본관은 *봉고파직이오.”

사대문에 방 붙이고, 옥 형리 불러 분부하되,

“네 골 옥수(獄囚)를 다 올리라!”

호령하니 죄인을 올리거늘 다 각각 문죄(問罪) 후에 무죄자 방송(放送)할 새,

“저 계집은 무엇인다?”

형리 여쭙오되,

“기생 월매 딸이온데, *관정(官庭)에 포악(暴惡)한 죄로 옥중에 있삽내다.”

“무슨 죄다?”

형리 아뢰되,

“본관사또 수청(守廳)으로 불렀더니, 수절(守節)이 정절(貞節)이라 수청 아니 들러 하고 관전에 포악한 춘향이로소이다.”

어사또 분부하되,

“너만 년이 수절한다고 관정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쏘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官長)마다 개개이 명관이로구나. 수의사또 들으시오. 층암절벽(層巖絕壁)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靑松綠竹) 푸른 나무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주소.”

하며,

“향단아, 서방님 어데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 문간에 오셨을 제 천만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이 고개를 들어 *대상(臺上)을 살펴보니 걸객(乞客)으로 왔던 낭군 어사또로 뚜렷이 앉았구나. 반 웃음 반 울음에,

“얼씨구나 좋을씨고. 어사 낭군 좋을씨고. 남원 읍내 추절(秋節)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이화 춘풍(李花春風) 날 살린다.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 [열녀 춘향 수절가]

*봉고파직: 어사나 감사가 못된 짓을 많이 한 고을의 원을 파면하고 관가의 창고를 봉하여 잠금.

*관정: 예전에, 관가의 뜰을 이르던 말.

*대상: 높고 평평한 건축물 위

[문제] 진위판단

1. 밑줄 ‘추절(秋節)’의 의미 및 이와 비슷한 표현을 지문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정답

- ‘추절’의 의미 :

- ‘추절’과 유사한 표현 :

#73 정답 및 해설

[지문]

[앞부분 줄거리] 암행어사가 되어 춘향이 있는 남원으로 돌아온 이몽룡은 학정을 일삼아 백성들을 괴롭힌 본관사또를 잡아들인다.

“본관은 *봉고파직이오.”

사대문에 방 붙이고, 옥 형리 불러 분부하되,

“네 골 옥수(獄囚)를 다 올리라!”

호령하니 죄인을 올리거늘 다 각각 문죄(問罪) 후에 무죄자 방송(放送)할 새,

“저 계집은 무엇인다?”

형리 여쭙오되,

“기생 월매 딸이온데, *관정(官庭)에 포악(暴惡)한 죄로 옥중에 있삽내다.”

“무슨 죄다?”

형리 아뢰되,

“본관사또 수청(守廳)으로 불렀더니, 수절(守節)이 정절(貞節)이라 수청 아니 들러 하고 관전에 포악한 춘향이로소이다.”

어사또 분부하되,

“너만 년이 수절한다고 관정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쏘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官長)마다 개개이 명관이로구나. 수의사또 들으시오. 층암절벽(層巖絶壁)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靑松綠竹) 푸른 나무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주소.”

하며,

“향단아, 서방님 어데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 문간에 오셨을 제 천만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이 고개를 들어 *대상(臺上)을 살펴보니 걸객(乞客)으로 왔던 낭군 어사또로 뚜렷이 앉았구나. 반 웃음 반 울음에,

“얼씨구나 좋을씨고. 어사 낭군 좋을씨고. 남원 읍내 추절(秋節)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이화 춘풍(梨花春風) 날 살린다.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 [열녀 춘향 수절가]

*봉고파직: 어사나 감사가 못된 짓을 많이 한 고을의 원을 파면하고 관가의 창고를 봉하여 잠금.

*관정: 예전에, 관가의 뜰을 이르던 말.

*대상: 높고 평평한 건축물 위

[현장독해]

- 춘향전 많이 봤지만, 그래도 읽자

[좋은 독해 습관 : 출제자가 적어 놓은 글자는 겸손하게 다 읽기]

- 본관 = 본관사또 잘 가시고

- ‘죄인 = 옥수’인가보다. 옥수 올리라고 했는데 죄인 올렸으니까.

- 본관사또 = 백성을 괴롭히다 봉고파직당한 놈, (혹서-수청아-뭔자-모르겠더라도) 나쁜 놈 말 안 들어서 옥중에 있는 춘향

- 이몽룡이 춘향 모른 채 하네? 테스트하는 듯?

- 반어법. 다 쓰레기들인데 명관이라고 반대로 말해 비꼼.

- 설의적 표현. 바위는 바람에 안 무너지고, 푸른 나무는 눈이 온다고 변하지 않음. 즉 춘향이 자신이 바위, 푸른 나무고, 바람 눈 온다고 안 흔들린다.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 파악]

- 이 와중에도 서방님 찾는 춘향.

- 반전. 낭군이 어사또.

- ‘추절? 한자 가을 추(秋)니까 가을?’ (혹서-뭔자-모르겠더라도) 뒤에 ‘봄이 들어 이화 춘풍 날 살린다고 하니’의 반대인 ‘추절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는 부정적인 상황인가보다

[좋은 독해 습관 : 밑줄의 의미-의도 생각해보고 넘어가기]

[좋은 독해 습관 : 나무(단어 자체 의미)를 잘 모르겠다면, 숲(상황 맥락)을 봐서 의미추론]

[정답] 추절은 ‘가을’을 의미하여 본관사또의 학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으며, ‘수청, 바람, 눈’이 비슷한 표현이다.

[출제요소] 나무를 모르겠으면 숲(상황)이라도 파악, 지문-지문 동어반복(비슷한 표현 연결), 설의적 표현 짚고 가기

#74 정답 및 해설

[지문]

신경과학의 많은 연구들은 기억의 형성을 '장기강화'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뇌의 신경세포들은 세포 사이의 틈새인 시냅스로 전기적, 화학적 신호를 전달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냅스 연결을 한다. 이 신호가 강력해 시냅스 연결이 오래 유지되는 현상이 장기강화이며, 이를 통해 기억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시냅스 연결은 신경세포에 있는 이온들의 활동이 바탕이 된다. 이온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되며 이동하는 성질 등으로 신경세포막의 안과 밖을 이동한다. 이러한 이온의 이동은 신경세포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우선 외부 자극이 없으면 주로 세포막 밖은 양이온이 많고, 안은 음이온이 많아져 세포막 안팎이 각각 양전하, 음전하로 나뉘는 분극이 일어난다. 이 과정의 신경세포는 안정 상태에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 등의 외부 자극이 있으면 양전하를 띤 Na^+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어 세포 안에 양전하가 쌓이는 탈분극이 일어난다. 탈분극은 신경세포를 흥분상태로 만들면서 전기적 신호인 활동전위를 형성한다. 신경세포가 흥분상태가 되면 세포 밖의 Ca^{2+} (칼슘 이온)이 안으로 확산된다. 그러면 이 Ca^{2+} 은 글루탐산을 비롯한 여러 신경전달물질, 즉 화학적 신호를 밖으로 분비시킨다. 이 신호가 다른 신경세포와 결합하면서 시냅스 연결이 이루어진다. 이때 화학적 신호를 분비한 세포를 '시냅스전세포', 화학적 신호를 받는 세포를 '시냅스후세포'라고 한다.

이러한 시냅스 연결이 장기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글루탐산과 Ca^{2+} 의 역할 때문이다. 흥분상태의 시냅스전세포가 분비한 글루탐산은 시냅스후세포의 암파 수용체*와 NMDA 수용체를 자극한다. 먼저 암파 수용체의 통로는 많은 양의 글루탐산의 자극이 있으면 개방된다. 이 통로로 Na^+ 이 안으로 확산되면 시냅스후세포도 탈분극되어 흥분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글루탐산의 자극을 받고 있는 NMDA 수용체의 통로에서 Mg^{2+} (마그네슘 이온)이 제거되어 통로가 열린다. 그리고 개방된 NMDA수용체 통로로 Na^+ 과 Ca^{2+} 이 확산에 의해 안으로 유입된다. 유입된 Ca^{2+} 은 세포 안의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단백질은 새로운 암파 수용체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 시냅스후세포는 Na^+ 을 더 많이 받아들여 탈분극을 강화하고, Ca^{2+} 의 유입이 지속되어 흥분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수용체 : 단백질로 된 구조물로 세포 외 물질에 반응하는 역할을 하며, 세포막을 관통하는 통로를 갖고 있어 이온을 투과시키기도 함.

[현장독해] + [정답 및 해설]

- <보기> 그림에 시냅스전세포, 시냅스후세포, 글루탐산 등이 이 보이니까 지문 읽다가 이런 것들 나오면 그림이랑 같이 보자

[좋은 독해 습관 : 지문-그림 동어반복]

지문 읽을 때 그림 신경 쓰면서 관련 부분 나오면 연결짓기

- 키워드 '기억' '장기강화'
- 이 신호=전기적 화학적 신호가 강력-> 오래=장기-> 기억형성

[좋은 독해 습관 : 인과관계 파악]

- 이온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
- [기초 상식 :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가는 여러 현상들]

- 분극 = 안정 상태

vs 탈분극 = 불안정 상태라는 것이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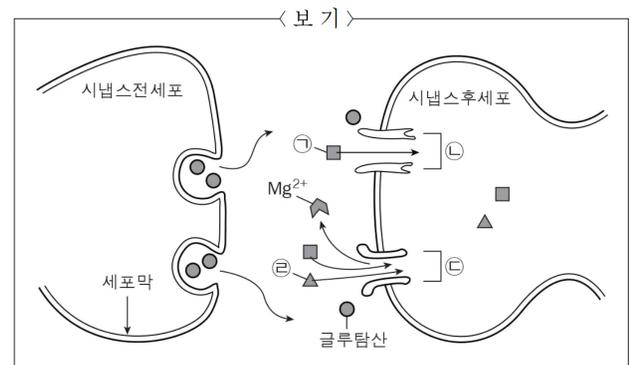
[좋은 독해 습관 : 차이가 있는 그룹 구분짓기]

- 아까 그림 키워드 나왔네. 그림 왼쪽 시냅스전세포에서 ●글루탐산이 나온거네

- 암파 수용체, NMDA 수용체. 수용체는 수용체인데 2가지가 나왔으니까 둘의 차이점 비교하라고 하겠네.

[좋은 독해 습관 : 차이가 있는 그룹 구분짓기]

- Na^+ 는 암파 수용체 통로랑 관련 있는 거고.
- >가 Mg^{2+} 인데, 그림에서 >가 제거되어 통로가 열리는 ⊕이 **NMDA 수용체 통로**. 그림 > Mg^{2+} 가 없는 ⊕이 **암파 수용체의 통로**. 암파 수용체의 통로로 확산되는 ⊕은 **Na^+** 고. ⊕이 **Ca^{2+}**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을 읽을 때 그림 활용하여 지문 이해도 높이기. 그림 관련 문제 지문 읽으면서 주관식으로 미리 풀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렇게 안 읽으면 어차피 문제 못 풀]

★★★좋은 독해 습관들 다 알겠는데요. 그럼 지문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나요?★★★

	풀고	안 풀고
맞힘	1순위	
틀림	3순위	2순위

- 우리는 제대로 읽고, 제대로 풀어서 맞히는 것을 1순위로 지향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에는 실력을 쌓아나가 성장할 수 있기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시험볼 때에는 가장 안정성이 높아, 운이라는 불확실한 요소에 덜 기대어도 되기 때문에 지문 읽고 이해하고 문제 푸는 것이구요.
- 안 풀고 맞히는 것은 순위에도 넣지 맙시다. 공부할 때 안 풀고 맞히는 건 그 순간 운이 좋거나 답을 베끼는 것이니 개인의 성장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거구요. 시험 실전에서 소위 말해 평가원이 수능에서 요구하는 출제요소에서 벗어난 이상한 풀이 방법들(‘눈알 굴러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은, 아무리 공신력 있는 분들에 의해 오랫동안 검증되어 온 방법이라고 할지라도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 시험 최후의 순간에, 지문 이해도 못했고 시간도 없고 하니 제대로 안 풀고도 맞힐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서만 쓰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서조차도 시험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니까, 대신 운과 기적이라도 기대어 보자는 마음으로 쓰시라는 겁니다. 현우진 선생님 말처럼 세상에 기적은 없는 거라지만, 이런 되도 않는 기적이라도 시도한 사람에게 나 일어나는 것일 테니까요.
- 저는 안 풀고 그냥 틀리는 것(2순위)이, 풀고 틀리는 것(3순위)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74 비문학’ 지문을, 제시한 현장독해 방법처럼 시간 들여서 그림과 지문 연결해가며 읽지 않을 거라면, 아예 이 지문을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 들여서, 지문 이해도를 최대한 높여서 풀지 않으면, 어차피 문제 풀어봤자 다 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풀고 그냥 찍어서 한 문제 운으로 맞히나(2순위), 시간·멘탈 다 갈아 넣어가며 끙끙 앓아가면서 풀었겠지만, 어차피 지문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한 문제 빼고 다 틀리나(3순위), 맞히고 틀리는 개수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풀든 안 풀든 맞히는 개수가 비슷하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안 풀어서 시간과 멘탈을 아끼고,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 + 작년에 화법과 작문 영역을 선택하여 국어 100점 만점 받으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본인은 비문학 3지문을 제외한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법 영역 31문제를 45분 내에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5분을 비문학 3지문 14문제 푸는데 때려 박아서, 지문을 이해될 때까지 읽고, 안 풀리는 문제는 모든 선택지의 모든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따져가며 풀었습니다. 결국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아끼고 아껴, 비문학 지문 이해와 선택지 진위판단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실전에서 먹히는 전략 중 하나라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비문학 영역에서 정답률을 지켜내려면 결국 비문학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를 맞히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맞힌 사람이 나와서 자랑스럽게 떠들어댄다고 할지라도, 그 주인공이 당신일 가능성은 0.000001%입니다. 1년에 단 1번 응시할 수 있고, 맞치면 또 1년을 기다려서 준비해야 하는 시험을 운과 기적에 기대어 보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럴거면 차라리 로또를 사세요.
- ++ 본인이 의대, 즉 수능 전국 1000등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시면 어떤 지문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의대가 목표가 아닌 학생이라면, 최악의 경우에는 비문학에서 가장 최고난도인 것처럼 보이는 지문을 그냥 버리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문을 버리더라도, 나머지 영역의 지문 더 잘 읽고 잘 풀어서 맞히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는데 적어도 국어 영역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고난도 지문에 집착하다가, 본인의 시간도 멘탈도 페이스도 잃고 망가져서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등급을 받으면, 재수해야 하니까요. 의태교서가 된 수능이라는 현실 속에서, 의대에 가고자 한다면 재수든 삼수든 사수든 해야겠지만, 의대 갈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사회로 나아가 부딪히며 배우고 성장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목표하는 대학 가는 것이 1순위, 재수만은 안하는 것이 2순위라고 생각하시면서 시험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75 문법

[지문]

1. 너는 누나와 **썩** **닮았다**
2. **옛날** 옛적 어느 한 마을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웠어요.
3. 네가 지금까지 먹은 빵이 이걸로 **셋째**다.
4. 저기 오시는 **인**가 바로 그분입니다.

[문제]

- 밑줄 친 단어들의 **품사**는 무엇인가요? 의미와 기능까지 최대한 디테일하게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쫓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쫓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 닮다 : 동사

-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사람 또는 사물이 서로 비슷한 생김새나 성질을 지니다.
- + 명령형 어미 '-아라'가 결합될 수 있으니 동사입니다. (예문) 너는 누나 좀 닮아라.
- + 너의 동작보다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즉, 우리의 상식적 판단과 배치되는 예외입니다. 예외는 암기!
- + '-았-'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구요.

2. 옛날 : 명사

- 지난 지 꽤 오래된 시기를 막연히 이르는 말. / 이미 지나간 어떤 날.
- + 영어 old, past 등이 형용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형용사라는 느낌을 먼저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옛적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혹시 관형사? 혹은 문장 전제를 수식하는 부사? 이런 느낌마저도 들게 합니다. 그러나 명사입니다. 예외는 암기!

3. 셋째 : 명사

- 맨 앞에서부터 세어 모두 세 개째가 됨을 이르는 말. (예문) 그 녀석이 깬 유리창이 이걸로 셋째다.
- + (양)수사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자식들 중 3번째 자식을 의미하는 셋째는 명사라고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이건 생소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외는 암기!

4. 이 : 의존명사

-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
- + '이'는 대명사, 관형사, 수사, 조사 등으로 정말 많이 쓰이는데 의존명사 '이'도 있습니다. 특히 대명사라고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앞에 '오시는'이라는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깐요.
- + 이 문장의 '그분'은 '그 사람'을 아주 높여 이르는 삼인칭 대명사

[출제요소] 예외 암기. 틀려가며, 틀릴 때마다 암기하며 지식을 쌓아나가기.

#76 문학

[지문]

“있는 자들은 자기들만 사람인 줄 알지. 더러 그렇지 않은 우등생도 있지만 말야. 난 그 단순한 자만을 고맙게 생각하네. 거기에 우리가 설 자리가 있고, 그게 그들 스스로가 빠져들어 갈 함정이니까.”

[문제] 밑줄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있는 자들 :
2. 우등생 :
3. 자만 :
4. 거기 :
5. 우리 :
6. 자리 :
7. 그들 :
8. 함정 :

#76 정답 및 해설

[지문]

“있는 자들은 자기들만 사람인 줄 알지. 더러 그렇지 않은 우등생도 있지만 말야. 난 그 단순한 자만을 고맙게 생각하네. 거기에 우리가 설 자리가 있고, 그게 그들 스스로가 빠져들어 갈 함정이니까.”

[현장독해] + [정답 및 해설]

1. 있는 자들 : 단어 자체만 보면, '있는 자들'은 보통 '부자들'을 의미하던데(나무=단어 자체 의미로 추론), '자기들만 사람인 줄 안다'고 하니까, 반대로 '있지 않은 자들' 즉 못 가진 자들은 사람취급 안한다는 것. 부자의 서민 무시려나?(숲=주변 맥락으로 추론)

[좋은 독해 습관 : 단어 자체 의미와 주변 맥락으로 의미 추론]

[좋은 독해 습관 : 유사한 경험 및 배경지식을 떠올려보기]

2. 우등생 : 단어 자체만 보면, 긍정적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네 (나무=단어 자체 의미로 추론). 앞에 '그렇지 않은'. 즉 자기들만 사람인 줄 알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좋은 사람들 같은데?(숲=주변 맥락으로 추론)

[좋은 독해 습관 : 단어 자체 의미와 주변 맥락으로 의미 추론]

+ ('그렇다'라는 추상적 표현의 의미를 지문 앞 내용과 연결지어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기)[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3. 자만 : 앞에 '자기들만 사람인 줄 안다'는 게 '자만'하는 거네.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4. 거기 : 있는 자들이 자만하고 자기들만 사람인 줄 아는 상황
5. 우리 :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어떤 집단이겠고, 있는 자들이 만약 '부자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뭐... 지식인? 사회주의 운동가? 이런 사람들이려나? [좋은 독해 습관 : 반대적 사고]

6. 자리 : '설' 자리라고 하니까. '있는 자들'이 '자만'해서 '자기들만 사람인 줄 알면', 없는 자들 무시하고 차별하면서 문제가 생길 거 아냐.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라는 사람들이 필요해지는 게 아닐까?

[좋은 독해 습관 : 단어 자체 의미와 주변 맥락으로 의미 추론]

7. 그들 : 있는 자들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8. 함정 : '있는 자들'이 자만해서 없는 자들 무시하다가 문제 일으켜서, '우리'라는 사람들의 주도 하에 역풍을 맞는 그런 상황이 함정 아닐까? 이걸 그들 스스로가 잘못해서 빠지는 함정인거고.

[좋은 독해 습관 : 단어 자체 의미와 주변 맥락으로 의미 추론]

[출제요소] 나무(단어 자체 의미)와 숲(단어 주변 맥락)을 통해 표현의 의미 및 전체 상황 파악. 지문-지문 동어반복(지문 앞뒤의 비슷한 표현 연결). 반대적 사고

※ '그 단순한 자만을'에서 '그/단순한/자만/을'로 끊어 읽지 않고, '그/단순한 자/만을' 로 끊어 읽는 경우.
: '단순한 자'는 있는 자기들만 사람인줄 아는 있는 자들 아닐까요? 우등생이 단순하다고 하는 건 잘 안 와 닿아서요. 물론 지시관형사 '그'와 거리 상 가까운 건 '우등생'이라 애매하네요. 다수론은 '단순한 자'='있는 자들'이고, 소수론은 '단순한 자'='우등생'일 듯합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안국어

#77 멘토링

공부하면 좋은 이유1. 일단 똑똑해지자

이야기에 앞서

만약 본인이 좋아하는 것, 미래에 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하고,
남들과 비교해 봐도 본인이 그걸 잘하며,
그걸 위해 인생을 바칠 각오가 되어있다면,
공부 때려치우고 그걸 하십시오.
공부만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입니다.
10대임에도 투자자, 디자이너, 환경 운동가, 인플루언서 등으로
자기 부모님보다, 저보다 성공하는 친구들 요새 많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성공한 유튜버로서,
연 500억은 벌 거라는 추정에 대해
내가 고작 그거밖에 못 벌 것 같냐며
우스워하는 유튜버 '퓨디파이'가 있는데요.

유튜브를 자신의 업으로 삼기 시작할 무렵,
일주일 내내, 삼시 세끼를 스파게티 생면만 먹으며,
유튜버로서의 진로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내가 유튜버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돈도 못 벌어서,
스파게티 생면만 먹고 살더라도,
유튜버라는 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를 명확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퓨디파이' 정도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각오를 바탕으로,
하고자하는 일을 정했다면,
공부마저도 그 일을 잘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직 딱히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잘하는 것도 없으며,
공부를 왜 해야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면,
아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공부, 아니 똑똑해지자

퓨디파이 말고도 자신이 잘하는 걸 찾아서,
남들이 뭐라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에 몰두해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는 세상에 많습니다.
현우진 선생님도 계시구요.

하지만 본인이 청춘과 인생을 걸만큼 좋아하고 잘하는 게 아직 없다면,
그게 내 인생에 나타날 그 순간을 위해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일단 똑똑해지고, 남다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해나가는 인내심을 기르고,
사소한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섬세함을 갖추고,
A를 보고 A와 관련된 다양한 걸 떠올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사람이 되고,
남들은 그저 대충 느낌으로 어림짐작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통찰해내는,
남들이 쉽게 해내지 못하는 이러한 능력들을 본인은 쉽게 해낼 수 있도록 똑똑해지세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공부도 안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인생을 걸만큼 하고 싶은 일이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 이길 걸 이미 알고 싸워도, 겨우겨우 이길까말까 한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해보려고 시도는 하는데 어려운 게 너무 많을 겁니다.
잘하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이론 이해도, 실전 적용도 힘들 겁니다.
남들은 곧잘 실력이 늘어 성과를 내는데 나만 더디게 가는 듯해서 답답할 겁니다.
얼른 배우고 싶은데 금방 지치고, 몸도 머리도 아파서 자꾸만 손을 놓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또 포기하게 될 거구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순간마다 계속
'공부 좀 해둘걸, 남들보다 좀 더 똑똑해지려 노력할 걸, 시간을 좀 더 소중히 쓸 걸'하면서 후회하곤 하구요.

그러니 당장 좋아하는 게 없을지라도,
일단 남들보다 똑똑해져서,
춤이든 인공지능이든 운동이든 투자가든 게임이든 패션이든
뭘 하든 남보다 잘하는 게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보세요.
무언가를 남들보다 잘 해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른 일을 할 때도 남들보다 더 잘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내 눈 앞에 놓인 일이 무엇이든,
아무리 사소한 것이든, 하기 싫은 것이든, 그거라도 잘 해내는 사람은,
진정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더 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
똑똑해지는 좋은 능력들을 훈련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대다수 학생들 앞에 놓인 바로 그 일,
그게 바로 공부 아니던가요?

#78 비문학

[지문]

나라는 민(民)을 근본으로 삼고 민은 재물으로써 살아가니, 애민(愛民)하는 요체는 마땅히 절용(節用)을 앞세워야 하고 절용하는 실속은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소비를 줄이지 않고 쓰는 것을 절약하지 않는다면 곤궁함에서 회생시켜 그 생계를 후하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국토의 절반이 산과 계곡이고 인구는 적는데 유식(遊食)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생산할 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니 재물을 더욱 절약해서 사용해야 할 것인데, 검소를 숭상하는 교화(教化)가 거친 명주옷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사치를 경쟁하는 풍습이 갈수록 민간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대부들 사이에 의복과 음식의 제도가 옛날에는 없던 것이 지금은 있는 것이 있는데 옛날 것은 검소했으나 지금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로부터 풍속이 날로 사치로 치달고 재용(財用)이 날로 부화(浮華)함에 빠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재물이 모두 소민(小民)들의 고혈(膏血)에서 나오는 것이니 백성들이 어찌 빈궁하고 곤란하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말세에 풍습이 변화된 데 따른 것일 뿐 아니라 군상(君上)께서 영도(領導)하여 통솔하시는 방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략]

신이 공부(貢賦)를 맡은 사람이 논한 것을 듣건대 한 해의 수입으로 반년의 용도를 지탱하지 못하고, 근근이 살림살이를 이끌며 겨우 눈앞의 일만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관서(關西)지방의 소미(小米)와 다른 관사(官司)에 남아 있던 저축 덕분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담아 둔 물은 모두 우물 속의 물이고 잔에 따라 놓은 술은 모두 병 속의 술인 것이기에, 우물이 마르면 항아리가 비게 되고 병이 기울어지면 잔이 마르게 될까 두렵습니다.

[문제] 지문의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1. 항아리에 담아 둔 물 :
2. 우물 속의 물 :
3. 잔에 따라 놓은 술 :
4. 병 속의 술 :
5. 우물이 마르면
6. 항아리가 비게 되고 :
7. 병이 기울어지면 :
8. 잔이 마르게 될까 :

※ 2009년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홀) 14~16번 비문학 지문 참조

#78 정답 및 해설

[지문]

나라는 민(民)을 근본으로 삼고 민은 재물로써 살아가니, 애민(愛民)하는 요체는 마땅히 절용(節用)을 앞세워야 하고 절용하는 실속은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소비를 줄이지 않고 쓰는 것을 절약하지 않는다면 곤궁함에서 회생시켜 그 생계를 후하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국토의 절반이 산과 계곡이고 인구는 적은데 유식(遊食)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생산할 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니 재물을 더욱 절약해서 사용해야 할 것인데, 검소를 숭상하는 교화(教化)가 거친 명주옷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사치를 경쟁하는 풍습이 갈수록 민간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대부들 사이에 의복과 음식의 제도가 옛날에는 없던 것이 지금은 있는 것이 있는데 옛날 것은 검소했으나 지금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로 부터 풍속이 날로 사치로 치달고 재용(財用)이 날로 부화(浮華)함에 빠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재물이 모두 소민(小民)들의 고혈(膏血)에서 나오는 것이니 백성들이 어찌 빈궁하고 곤란하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말세에 풍습이 변화된 데 따른 것일 뿐 아니라 군상(君上)께서 영도(領導)하여 통솔하시는 방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략]

신이 공부(貢賦)를 맡은 사람이 논한 것을 듣건대 한 해의 수입으로 반년의 용도를 지탱하지 못하고, 근근이 살림살이를 이끌며 겨우 눈앞의 일만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관서(關西)지방의 소미(小米)와 다른 관사(官司)에 남아 있던 저축 덕분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담아 둔 물은 모두 우물 속의 물이고 잔에 따라 놓은 술은 모두 병 속의 술인 것이기에, 우물이 마르면 항아리가 비게 되고 병이 기울어지면 잔이 마르게 될까 두렵습니다.

[현장독해] + [정답 및 해설]

- 나라의 근본인 백성은 재물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재물 절약하기 위해 소비 줄이는 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

[좋은 기초 어휘력 : 민(民)=백성, 절용(節用)=절약=소비 줄이기, 애민(愛民) =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좋은 독해 습관 : 부정어구 주의, 더한 것이 없다 = 이게 최고]

- 유식(遊食) : 놀고먹는 사람. 나라 생산성 증대에 도움이 안되는 사람. [1% 어휘력 : 이상적 풀이]

+ 정확히는 몰라도, 주변 맥락상 애네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 같다. 식(食)은 먹는다는 뜻이니까. 먹기만 하는 애들,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애들인 듯?

[좋은 독해 습관 : 앞뒤 맥락을 통해 의미 추론, 현실적 풀이]

- 절약(2문단) = 절용(1문단)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비슷한 표현들끼리 연결]

- 절약=절용=검소=거친 명주옷 입는=옛날 것은 검소(A)

vs 사치를 경쟁=사치스러운 것= 재용이 날로 부화함에 빠짐(B)

[좋은 독해 습관 : 비슷한 표현들끼리 연결지어 그룹짓기]

- 소민들의 고혈에서 사치가 나오는 것이니 백성들은 빈궁하고 곤란하게 된다.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 파악]

- 다른 지방에 남아 있는 저축까지 끌어다 써야 겨우 하루 버티는 상황 [좋은 독해 습관 : 전체적인 상황 파악 및 정리]

- 우물 속에 있던 물을 퍼다 항아리에 담아 두는 거니까, 2. '우물 속의 물'은 백성들이 내는 세금, 즉 '소민들의 고혈'이네.

- 그렇다면 1. '항아리에 담아 둔 물'은 백성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저장해둔 재물이겠네.

- 잔에 따라 놓은 술과 병 속의 술 역시 위와 비슷한 맥락이겠지만, '술'이라는 점에서 '사치'에 좀 더 가깝겠네. 즉, 3. '잔에 따라 놓은 술'은 사대부들의 사치. 4. '병 속의 술'은 백성들이 내는 세금, '소민(小民)들의 고혈'이겠네. 5. '우물이 마르고' 7. '병이 기울어지는' 것은 결국 백성들이 빈궁하고 곤란하게 되어 세금조차 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6. '항아리가 비고' 8. '잔이 마르게 된다'는 것은 국고가 텅텅비고 더는 사치를 부리지 못한다는 것이 아닐까.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비슷한 표현들끼리 연결.

비유적 표현까지 지문 앞 표현과 연결지어가며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구요? 이렇게 안 읽으면 어차피 문제 못 풀니다]

#79 문학

[보기]

우리는 시를 감상하면서 시인이 시 속에 감추어 놓은 여러 장치들을 발견해 내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 장치 중 하나인 시적 공간은 시인이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설정한 곳으로 우리가 일상적 경험을 통해 지각하며 생활하게 되는 공간과는 성격이 다르다.

시적 공간은 시인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부터 구성된다. 시인은 이러한 시적 공간을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공간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간과는 다른 의미의 공간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동일한 공간도 한 편의 시에서 다른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또한 시적 공간은 시인이 살아온 삶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독자가 주체적으로 체득한 공간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이처럼 시적 공간은 감상의 실마리가 되며 나아가 창조적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로 기능하기도 한다.

[지문]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모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어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백석, [수라(修羅)]

[문제] 진위판단

1. 대상과의 이별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정답 : (참 / 거짓)
2. 계절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3. 시인은 1연에서 '문 밖'을 일상적 경험을 통해 지각하는 공간과는 다른,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공간으로 설정했겠군.
정답 : (참 / 거짓)

#79 정답 및 해설

[보기]

우리는 시를 감상하면서 시인이 시 속에 감추어 놓은 여러 장치들을 발견해 내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 장치 중 하나인 시적 공간은 시인이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설정한 곳으로 우리가 일상적 경험을 통해 지각하며 생활하게 되는 공간과는 성격이 다르다.

시적 공간은 시인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부터 구성된다. 시인은 이러한 시적 공간을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공간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간과는 다른 의미의 공간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동일한 공간도 한 편의 시에서 다른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또한 시적 공간은 시인이 살아온 삶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독자가 주체적으로 체득한 공간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이처럼 시적 공간은 감상의 실마리가 되며 나아가 창조적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로 기능하기도 한다.

[지문]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모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어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백석, [수라(修羅)]

[현장독해]

- 공간 중요. 일상과는 다르다

[좋은 독해습관 : 키워드 파악]

-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공간. 공간에 상식과 다른 의미 부여. 같은 공간도 의미가 달라지는

[좋은 독해 습관 : 차이가 있는 그룹 구분짓기]

- 시인, 독자, 공간 중요

[현장독해]

- 거미 징그러움. 어 공간 나왔다. '문 밖'. 일상공간인 듯?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와 지문 내용 연결하며 읽기]

- 시간적 배경

- 어... 설마...? 새끼 거미 엄마?

- 만나봐ㅠㅠ

- 이산가족 만들었네. 인간어 머안해ㅠㅠ. 여기서 공간 '문 밖'은 화자가 떨어뜨려 놓은 가족 다시 만나길 바라는 공간이네. 보기로 치면 공간에 상식과 다른 의미 부여한거 + 같은 공간도 1연이랑 의미가 달라지는 거 2개

[좋은 독해 습관 : 상황 파악을 통한 공감하며 읽기]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와 지문 내용 연결하며 읽기]

- 아이고... 아까 버린 큰 거미에게서 갓 태어난 새끼 거미인가보네. 애는 또 어찌냐ㅠㅠ

[좋은 독해 습관 : 상황 파악을 통한 공감하며 읽기]

- 손조차도 애기에게는 너무 크니까 무섭겠지

- '문 밖'은 2연과 마찬가지로 다른 의미 부여한 공간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와 지문 내용 연결하며 읽기]

- 엄마=큰 거미(2연), 누나나 형=거미 새끼(1연), 이것=무척 작은 새끼 거미(3연)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에서 비슷한 표현 찾아 연결하며 읽기]

[정답] 1.거짓 2.거짓 3.참

1. 대상과의 이별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 시적 화자는 '나'이고, 시적 대상은 '거미 새끼, 큰 거미, 무척 작은 새끼 거미'입니다. 이들과의 이별에 대해서 화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시적 대상인 거미 가족을 이별시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시적 화자는 오히려 시적 대상인 거미들을 버림으로써 시적 대상들과 일부러 이별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적 대상들이 시적 화자 자신으로 인해 겪은 생이별을 극복하여 재회하기를 소망하죠. 대상과 이별하는 것을 화자가 의도하고 있다고까지 볼 수 있기에, 이별에 대해 안타까워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계절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주는 소재나 시어가 없는데,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시어가 있다면 찾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 배경은 있습니다. 밤이구요. 차디찬 밤이네요.
+ 밤이 차다고 해서 무조건 가을이나 겨울로 보는 것은 과합니다. 봄밤도, 가을밤도, 겨울밤도 누군가에게는 차디칠 수 있습니다.
+ 거미는 8월에 주로 나타나니까 가을이라는 생각.....이 날 때 멈추세요. 거미는 봄여름에도 보이므로 잘못된 상식일뿐더러, 수능 국어에서 시어인 '거미'의 특징에 대한 상식만을 근거로 하여 정답을 도출하게 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정답의 근거로 들고 오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미 속으로 정해놓은 정답을 합리화하려고 과한 근거를 끌고 오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비판적으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순간에 이런 생각이 났더라도 '이런 식으로 풀면 항상 틀리던데'라는 과거 경험을 토대로 사고를 중지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풀이 습관 : 풍부한 풀이·오답 경험을 바탕으로, 출제자의 사고와 동기화율이 높은 현실적 사고 만들어 나가기]

3. 시인은 1연에서 '문 밖'을 일상적 경험을 통해 지각하는 공간과는 다른,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공간으로 설정했겠군.

- 화자가 거미 새끼를 버림으로써,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일으킨 공간이 바로 '문 밖'이며, 가족 해체 공간은 일상적으로 경험하기는 힘든 공간이므로 참이다. 2연부터는 가족 상봉의 공간이니 1연은 가족 해체된 공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 : 다수론

+ 1연에서 '화자'는 '문 밖'을 일상적으로 벌레(거미는 절지동물 아냐?) 버리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 가족 생이별 시킬 의도로 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벌레 버린 공간이란 말이다. 2연부터는 가족 재회 소망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1연에서만은 일상적 경험을 통해 지각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공간이 아니며, 정답은 거짓이다. : 소수론 아니고 안 좋은 사고

-> 반박 : 벌레를 버리는 공간인 건 맞다. 그런데 그 벌레를 버림으로써 가족 공동체를 해체시킨 거다. 이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었다. 화자 자신은 모르고 그랬을지라도, 선택지 표현처럼 '시인'은 그렇게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벌레를 버리는 공간'이라는 당신 생각이 맞다고 해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공간'이 틀린 것은 아니다. 참이 맞다.

[좋은 풀이 습관 : 나의 논리와 근거가 맞았다고 해서, 나와 다른 선택지이 논리와 근거가 틀린 것은 아니다]

#80 문법

[지문]

아들 : 이 상자들은 다 뭘예요? 무거운데요.

딸 : 난 따로 시킨 거 없어~

아버지 : 그거 아마 너희 친할아버지께서 보내신 걸 거야. 네가 한번 확인해볼래?

아들 : 제가 뜯어볼게요. 아, 할머니께서 당신이 직접 담그신 김치를 보내셨나 봐요.

아버지 : 오늘 저녁에는 라면이라도 먹어야겠구나. 아무나 저기서 라면 좀 꺼내줄래?

어머니 : 그러지 말고 우리 외식 나가서 보쌘 먹을까?

[문제]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의 품사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 뭐 :

2. 난 :

3. 그거 :

4. 네 :

5. 제 :

6. 당신 :

7. 아무 :

8. 저기 :

9. 우리 :

#80 정답 및 해설

[지문]

아들 : 이 상자들은 다 뭘예요? 무거운데요.
 딸 : 난 따로 시킨 거 없어~
 아버지 : 그거 아마 너희 친할아버지께서 보내신 걸 거야. 네가 한번 확인해볼래?
 아들 : 제가 뜯어볼게요. 아, 할머니께서 당신이 직접 담그신 김치를 보내셨나 봐요.
 아버지 : 오늘 저녁에는 라면이라도 먹어야겠구나. 아무나 저기서 라면 좀 꺼내줄래?
 어머니 : 그러지 말고 우리 외식 나가서 보쌈 먹을까?

[정답]

1. 뭘 : 사물 미지칭 대명사 '무엇'에 조사'이'가 붙어 '뭘'로 축약
2. 난 : 1인칭 대명사 '나'에 보조사'는'이 붙어 '난'으로 축약
3. 그거 : 사물 지시 대명사 '그것'의 구어형
4. 네 : 2인칭 대명사 '너'에 조사'가'가 붙어 '네'로 축약
5. 제 : 1인칭 대명사 '저'에 조사'가'가 붙어 '제'로 축약
6. 당신 : (3인칭) 재귀칭 대명사
7. 아무 : 사람 부정칭 대명사
8. 저기 : (화자 청자 모두에게서 먼) 장소 지시 대명사
9. 우리 : 1인칭 대명사 (반말 복수형)

[대명사 정리]

1. 지시대명사

- 사물이나 장소의 이름을 대신해서 지시하는

1.1. 사물 지시대명사

- 이것(이) : 화자 가까이 있는 사물을 지시하는
- 그것(그) : 청자 가까이 있는 사물을 지시하는
- 저것(저) : 화자와 청자 둘 다에게서 먼 사물을 지시하는
- * 이, 그 :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지시할 수 있음

1.2. 장소 지시대명사

- 이곳(여기) : 화자 가까이 있는 장소를 지시하는
- 그곳(거기) : 청자 가까이 있는 장소를 지시하는
- 저곳(저기) : 화자와 청자 둘 다에게서 먼 장소를 지시하는
- * 여기, 거기 :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지시할 수 있음

2. 인칭대명사

- 사람의 이름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2.1. 1인칭 : 화자를 가리키는

- 나(1인칭 반말 단수형), 우리(1인칭 반말 복수형)
- 저(1인칭 낮춤말 단수형), 저희(1인칭 낮춤말 복수형)
- * 과인(임금 1인칭 낮춤말 단수형)

2.2. 2인칭 : 청자를 가리키는

- 너(2인칭 반말 단수형), 너희(2인칭 반말 복수형),
- 그대(2인칭 높임말 단수형), 그대들(2인칭 높임말 복수형)
- * 여러분(2인칭 높임말 복수형)
- 당신(2인칭 높임말 단수형), 당신들(2인칭 높임말 복수형)
- * 당신은 반말, 낮춤말도 맥락상 가능

2.3. 3인칭 : 화자나 청자가 아닌 제3자를 가리키는

- 이, 이들, 이분, 그, 그녀, 그분, 그들, 그녀들, 그분들, 저, 저들, 저분들(거리, 성별, 수일치, 높임에 따라 구분)

3. 재귀칭 :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다시 가리키는

- 저 : 예) 이 말티즈가 저밖에 모르고 행동하긴 해도 똑똑해요.
- 자기 : 예) 고양이는 자기 꼬리를 자르고서라도 도망친다.
- 당신 : 예) 할머니께서 당신이 직접 담그신 김치를 보내셨다.
- * 저희, 저희들, 자기들, 당신들도 맥락상 가능

4. 미지칭 : 모르는 대상을 가리키는

- 누구(사람 미지칭) : 예) 이 택배 주인 누구예요?
- 언제(사물but시간 미지칭) : 예) 그게 언제입니까?
- 어디(장소 미지칭) : 예) 지금 어디 계신가요?
- 무엇(사물 미지칭) : 예) 저건 무엇인가요?

5. 부정칭 : 일일이 가리키기 힘든 (많은) 대상을 두루 가리키는

- 누구, 아무(사람 부정칭)
예) 그런 일은 누구나 아무나 겪는 일입니다. (해린·카즈하·원영·원터·류진·우기·지수 등 가히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 일일이 가리키기 힘들어 두루 가리킬 때)
- 언제(시간 부정칭), 어디(장소 부정칭)
예) 언제든 어디든 만나러 갑니다. (낮·밤·새벽 등, 산·강·바다 등 가능한 시간과 장소가 매우 많아서 일일이 가리키기 힘들어 두루 가리킬 때)
- 무엇(사물 부정칭)
예) 무엇인들 못하겠니? (가히 세상 모든 일들을 일일이 가리키기 힘들어 두루 가리킬 때)

#81 비문학

[지문]

국내외 사정으로 경기가 불안정할 때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안정 정책을 펼친다. 정부는 정부 지출과 조세 등을 조절하는 재정정책을,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통화정책을 활용한다. 이 정책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달리 활용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또 경기 과열이 우려될 때에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는 긴축적 재정정책이나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올리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총수요 :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구입하고자 하는 것

[문제] 빈칸 채우기

국내 사정으로 경기가 ()되어 정부가 긴축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며 시중 통화량이 ()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경기가 안정되었지만 대외 경제 상황에 의해 경기 ()이/가 우려된다면, 중앙은행의 경우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시켜 경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2019년 고2 9월 34 ~ 38번 비문학 지문 참조

#81 정답 및 해설

[지문]

국내외 사정으로 경기가 불안정할 때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안정 정책을 펼친다. 정부는 정부 지출과 조세 등을 조절하는 재정정책을,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통화정책을 활용한다. 이 정책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달리 활용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또 경기 과열이 우려될 때에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는 긴축적 재정정책이나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올리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총수요 :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구입하고자 하는 것

[문제] 빈칸 채우기

국내 사정으로 경기가 ()되어 정부가 긴축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며 시중 통화량이 ()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경기가 안정되었지만 대외 경제 상황에 의해 경기 ()이/가 우려된다면, 중앙은행의 경우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시켜 경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장 독해]

- 경기가 불안정 -> 경기 안정 정책
[좋은 독해 습관 : 인과관계 파악]
- 정부는 재정정책,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좋은 독해 습관 : 집단 간 차이점 파악]
- 경기가 좋지 않음 -> 정부 지출 늘리고 조세 감면, 중앙은행 통화량 늘리고 이자율 낮춤. -> 총수요 증가
[좋은 독해 습관 : 인과관계, 비례-반비례 관계 파악]
- + 정부니까 재정정책, 중앙은행 통화정책. 안 좋을 때 확장적.
[좋은 독해 습관 : 같은 집단끼리 묶어서 생각]
- 경기 과열 우려,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의 반대겠네.
[좋은 독해 습관 : 반대적 사고]
- > 정부 지출 줄이고 조세 증가(세금 올림), 중앙은행 통화량 줄이고 이자율 올림 -> (얘기는 없었지만) 총수요 감소
[좋은 독해 습관 : 인과관계, 비례-반비례 관계 파악]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앞 표현 활용하여 지문 뒷부분 독해]

[정답] 과열, 감소, 과열, 상승

- 정부가 긴축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경우는 경기 과열 상황. 중앙은행 역시 긴축적 통화정책을 쓰면니 시중 통화량은 줄이겠네(감소),
-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는 경우는 위처럼 긴축적 통화정책이니까 경기 과열이 '다시' 우려되는 것이고, 이자율을 올리겠네(상승). 뭐야 같은 얘기를 정부냐 중앙은행이냐 형태만 다르게 제시한거네.

※ 2019년 고2 9월 34 ~ 38번 비문학 지문 참조

[출제요소] 겉만 다르고, 속은 사실상 같은 것이 나왔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이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주관식으로 풀기. 그리고 기초상식.

★★★ 기초상식, 배경지식의 중요성 ★★★

- '뭘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 고작 한 문단 읽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서 풀라는 거냐. 설명 더 해줘야 한다.' 네 이젠 아닙니다. 국어 잘하고 싶으시면 다양한 분야의 기초 상식, 기초 개념어, 배경지식 잘 알고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국어 잘하고 싶으시면 수학도 과학도 경제도 법도 기술도 잘 하셔야 합니다. **배경지식이 풍부해야만 비문학을 잘 풀 수 있도록 하는 현 출제 방향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에 앞서, 이는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임을 명심합시다.** BIS비율 계산까지 요구한 19년 수능, 사칙연산을 요구한 22년 9평 검색엔진 적합도 지문,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메가 김동욱 선생님, 과학 개념서를 만드는 이감 국어. 5년도 넘게 일어나고 있어 왔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중인 실제 현상인 만큼 기초상식, 배경지식 공부 꾸준히 반드시 합시다.

- 경기(景氣) : 매매나 거래에 나타나는 호황·불황 따위의 경제 활동 상태
- 매매(賣買) : 물건을 팔고 사는 일.
- 호황(好況) : 모든 기업체의 활동이 정상 이상으로 활발한 상태.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늘고, 투자 및 고용의 수준이 높아진다.
- 불황(不況) : 경제 활동이 일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태. 물가와 임금이 내리고 생산이 위축되며 실업이 늘어난다.
- 조세(租稅)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 재정(財政)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행정 활동이나 공공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 활동
- 통화량(通貨量) : 나라 안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돈의 양
- 이자율(利子率) :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 정부 지출(政府支出) : 정부가 거둔 조세의 일부를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에 사용하는 일
- 긴축(緊縮) : 재정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지출을 줄임

+ 그러니까 정시한다고 정서충돼서 내신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능 국어 시험 잘보고 싶으면, 배경지식 공부를 위해서라도 1학년 기술가정, 공통과학, 공통사회 등 내신 공부를 하세요. **이미 망해버린 내신 등급과 어차피 되지도 않을 수시만 생각하면서 내신을 안 좋게만 보면, 내신 공부한다고 해봤자 동기부여도 안 되고 힘들어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수단으로 내신 대비를 하자고 다짐하면서 내신기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82 문학

[보기]

「두껍전」은 등장인물들의 행태를 통해 조선 후기 사회의 단면을 풍자한 우화 소설이다. 조선 후기는 기존의 신분 제도에 따른 지배 질서가 약화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대두되는 시기였다. 「두껍전」에서 중요한 관심사는 이전과 다른 질서에 의해 누가 상좌에 앉아야 하느냐이다. 이 질서에 따라 펼쳐지는 인물들의 행위는 풍자의 대상이 된다. 풍자는 상대에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의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또 한문구를 이용하여 유식한 체하는 모습으로도 드러난다

[지문]

장 선생 말씀자가 여쭙되

“우리 집 잔치를 벌이려 하오매 각처 손님을 청하려니와 만일 산중의 왕 백호산군(白虎山君)을 청치 아니하오면 후일에 필경 화가 될 듯하오니 어찌하오리까.”

장 선생이 눈을 감고 오래 생각하다가 이르되

“백호산군은 힘만 믿고 사나워 친구를 모르고, 연전에 네 아버를 해하려고 급히 쫓아오니 네 아버가 뛰기를 잘 못하였던들 하마 죽을 뻔하였나니, 그러므로 내 집에 험한 기억이 있고, 또한 산군이 좌석에 참례하면 각처 손님이 필경 겁이 나고 두려워 잘 놀지 못할 것이니 청치 아니함이 마땅하도다.”

이때 이화도화 만발하고, 왜철쭉 두견화가 새로이 피고 각색 방초가 드리웠으니 만학천봉에 춘홍이 가득하여 경개절승(景概絶勝)한지라. 주인 장 선생이 자리를 마련할 새 구름으로 차일 삼고 산세로 병풍 삼고 잔디로 포진하고, 장 선생은 갈건야복(葛巾野服)으로 손님을 기다리더니 동서남북 짐승 손님이 들어올 제, 뽕긴 사슴이며, 요망한 토끼며, 열없는 승냥이며, 방정맞은 잔나비며, 요괴로운 여우며, 얼렁덜렁 두꺼비며, 까칠한 고슴도치며, 빛 좋은 오소리며, 만신이 미련한 두더지며, 어이없는 수달피 등이 앞서며 뒤서며 펄펄 뛰어 문이 메게 들어오니, 주인은 동쪽 계단에 읊하고 객은 서쪽 계단에 올라 상좌를 다투어 좌석의 차례를 결단치 못하여 분분 난잡하니 주인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두꺼비는 원래 위엄이 없는지라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중에 아무 말도 못하고 목구멍을 벌떡이며 엉금엉금 기어 한 모퉁이에 엎드려 거동만 보더니, 그 중에 토끼란 놈이 강충 뛰어 내달아 눈을 깜짝이며 말하되

“모든 손님은 흰화치 말고 내 말을 잠깐 들어보소.”

주인 노루 대답하되 / “무슨 말씀이오니까.”

토끼 왈

“오늘 잔치에 조용히 좌를 정하여 예법을 정할 것이거늘 한갓 요란만 하고 무례하니, 아무리 우리 잔치인들 놀랍지 아니하랴.”

노루란 놈이 턱을 꼬덕이며 웃어 왈

“말씀이 가장 유리하니 원컨대 선생은 좋은 도리를 가르쳐 좌정케 하소서.”

토끼 모든 손님을 돌아보며 가로되

“내 일찍 들으니 ‘조정은 벼슬이요 향당은 나이’라 하오니 부질없이 다투지 말고 연치(年齒)를 차려 좌를 정하소서.”

노루가 허리를 수그리고 펄쩍 뛰어 내달아 왈

“내가 나이 많아 허리가 굽었노라. 상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하고, 암탉의 걸음으로 엉금엉금 기어 상좌에 앉으니, 여우란 놈이 생각하되,

- 작자 미상, [두껍전]

[문제] 진위판단

1. 장 선생이 ‘산군’을 ‘청치 아니함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기존의 신분 질서가 약화된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는군.

정답 : (참 / 거짓)

2. 노루가 ‘연치를 차려 좌를 정하자’는 기준에 동조하는 모습을 통해, 기존의 신분 질서를 옹호하는 인물을 풍자하는군.

정답 : (참 / 거짓)

3. 주인은 토끼의 제안에 따라 동쪽에 있는 계단에 올랐다.

정답 : (참 / 거짓)

#82 정답 및 해설

[지문]

장 선생 맘손자가 여쭙되

“우리 집 잔치를 벌이려 하오매 각처 손님을 청하려니와 만일 산중의 왕 백호산군(白虎山君)을 청치 아니하오면 후일에 필경 화가 될 듯하오니 어찌하오리까.”

장 선생이 눈을 감고 오래 생각하다가 이르되

“백호산군은 힘만 믿고 사나워 친구를 모르고, 연전에 네 아버를 해하려고 급히 쫓아오니 네 아버가 뛰기를 잘 못하였던들 하마 죽을 뻔하였나니, 그러므로 내 집에 험한 기억이 있고, 또한 산군이 좌석에 참례하면 각처 손님이 필경 겁이 나고 두려워 잘 놀지 못할 것이니 청치 아니함이 마땅하도다.”

이때 이화도화 만발하고, 왜철쪽 두견화가 새로이 피고 각색 방초가 드리웠으니 만학천봉에 춘홍이 가득하여 경개절승(景概絶勝)한지라. 주인 장 선생이 자리를 마련할 새 구름으로 차일 삼고 산세로 병풍 삼고 잔디로 포진하고, 장 선생은 갈건야복(葛巾野服)으로 손님을 기다리더니 동서남북 짐승 손님이 들어올 제, 뽕긴 사슴이며, 요망한 토끼며, 열없는 승냥이며, 방정맞은 잔나비며, 요괴로운 여우며, 얼렁덜렁 두꺼비며, 까칠한 고슴도치며, 빛 좋은 오소리며, 만신이 미련한 두더지며, 어이없는 수달피 등이 앞서며 뒤서며 펄펄 뛰어 문이 메게 들어오니, 주인은 동쪽 계단에 읍하고 객은 서쪽 계단에 올라 상좌를 다투어 좌석의 차례를 결단치 못하여 분분 난잡하니 주인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두꺼비는 원래 위엄이 없는지라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중에 아무 말도 못하고 목구멍을 벌떡이며 엉금엉금 기어 한 모퉁이에 엎드려 거동만 보더니, 그 중에 토끼란 놈이 강충 뛰어 내달아 눈을 깜짝이며 말하되

“모든 손님은 흰화치 말고 내 말을 잠깐 들어보소.”

주인 노루 대답하되 / “무슨 말씀이오니까.”

토끼 왈

“오늘 잔치에 조용히 좌를 정하여 예법을 정할 것이거늘 한갓 요란만 하고 무례하니, 아무리 우리 잔치인들 놀랍지 아니하랴.”

노루란 놈이 턱을 끄덕이며 웃어 왈

“말씀이 가장 유리하니 원컨대 선생은 좋은 도리를 가르쳐 좌정케 하소서.”

토끼 모든 손님을 돌아보며 가로되

“내 일찍 들으니 ‘조정은 벼슬이요 향당은 나이’라 하오니 부질없이 다투지 말고 연치(年齒)를 차려 좌를 정하소서.”

노루가 허리를 수그리고 펄쩍 뛰어 내달아 왈

“내가 나이 많아 허리가 굽었노라. 상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하고, 암탉의 걸음으로 엉금엉금 기어 상좌에 앉으니, 여우란 놈이 생각하되,

[현장독해]

- [보기]에서 ‘등장인물들의 행태’ ‘신분 제도에 따른 지배 질서 약화’ ‘새로운 질서’ ‘누가 상좌에 앉아야 하느냐’ ‘질서’ ‘풍자’ ‘외양 우스꽝스럽게’ ‘속임수 쓰는 비유리적 모습’ ‘한문구 유식한 체’ 이런 키워드들을 잡고, [지문] 읽을 때 활용해보자

: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을 위한 키워드 파악]

- ‘백호산군’ 안 부르면 안될 듯?

- 산군 나쁘고, 무섭고, 손님도 무서워함. 산군 안 부른다. 와 호랑이를 안불러? [보기] ‘신분 제도에 따른 지배 질서 약화’네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보기 연결해가며 읽기]

- 봄

- [보기] 외양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풍자가 여기네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보기 연결해가며 읽기]

- [보기] 누가 상좌에 앉아야 하느냐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보기 연결해가며 읽기]

- 토끼가 해결사?

- 놀랍다. 부정적으로 보네

: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꿔 의도 파악]

- ‘좋은 도리’(지문) = ‘새로운 질서’(보기)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보기 연결해가며 읽기]

- ‘나이’

- 노루ㅋㅋㅋㅋ 냅다 허리 굽히는거봐ㅋㅋㅋ [보기] ‘속임수 쓰는 비유리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 [좋은 독해 습관 : 지문-보기 연결해가며 읽기]

{좋은 독해 습관 : (웃길 땐 웃어가며) 공감하며 읽어 긴장 풀기}

[정답] 1. 참, 2. 거짓, 3. 거짓

1. 장 선생이 '산군'을 '청치 아니함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기존의 신분 질서가 약화된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는군.

- '참'입니다. 지문의 '백호산군'을 주인이 안 부른다는 대목에서, [보기] 신분 제도에 따른 지배 질서 약화를 떠올려 연결시켰다면 매우 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기]의 키워드를 지문과 연결지어가며 읽기라는 좋은 독해 습관이 선택지 풀이에서 정답의 확신성을 높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좋은 독해 습관이 좋은 정답률을 만들고 좋은 성적을 만든다.

2. 노루가 '연치를 차려 좌를 정하'자는 기준에 동조하는 모습을 통해, 기존의 신분 질서를 옹호하는 인물을 풍자하는군.

- '거짓'입니다. 앞진술 '연치를 차려 좌를 정하'자는 기준에 동조하는 것은 맞습니다. 바로 허리 수그리고 나이가 많아 허리 굽었다고 하니깐요. 토끼가 제시한 나이 기준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뒷진술이 틀렸습니다. 지문에서 '기존의 신분 질서를 옹호하는 인물'은 지문 제일 앞의 '말손자'로 보입니다. 백호산군을 부르자고 하니깐요. 그러나 노루가 허리를 수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하는 모습을 '통해' 말손자를 풍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루의 이런 모습은 '새로운 신분 질서를 옹호'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풍자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노루가 백호산군 부르자고 하는 말손자를 풍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허리를 굽히고 나이가 많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잔치 준비 과정에는 말손자가 등장하나, 잔치에 말손자가 있는지조차 지문 상으론 확실치 않습니다. 이처럼 '통해'라는 표현을 매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보기에 매우 짧은 2단어지만, 속으로는 선후관계, 의도, 인과관계 파악이라는 매우 중요한 출제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 [좋은 풀이 습관 : '통해' 보이면 늘 긴장하며 조심!]

+ 새로운 신분 질서를 옹호한다고 해서, 기존의 신분질서를 옹호하는 인물을 무조건 비판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말이 맞다고 해서, 나와 반대되는 말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며,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반드시 비판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근거·논리가 맞다는 사실이 남의 근거·논리가 틀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의 근거와 논리가 맞는 이유, 틀린 이유는 남의 진술 그 자체를 통해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3. 주인은 토끼의 제안에 따라 동쪽에 있는 계단에 올랐다.

-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시간상으로 주인이 동쪽 계단에 읍하고 있는 것은 토끼가 제안하기 전이죠. 주인이 토끼의 제안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표현이 지문에 없습니다.

: [좋은 풀이 습관 : 선후관계, 인과관계 주의] + [좋은 풀이 습관 :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틀림]

+ '주인이 동쪽 계단에 읍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읍하다'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선지 판단할 때 심적으로 동요했을 수 있습니다. '읍하다'는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리는, 인사하는 예(禮)의 하나입니다. '읍하다'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주인이 이미 동쪽에 서서 서쪽에서 올라가려는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겠죠. 단, '읍하다'라는 어휘의 의미를 알고 푸는 학생이 대한민국에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고전시가·고전소설·중세국어 공부하며 지나치듯 봤을 수는 있겠지만, 의식적으로 외우기까지 하는, 무의식적으로 외워진, 그런 훌륭한 최상위권들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읍하다'의 의미(나무)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려 시도해보고, 맥락적(숲)으로라도 파악해보려고 시도해보야겠지만, 그게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었더라도, 선택지에 있는 '토끼의 제안에 따라'가 선후관계도 틀렸고, 인과관계도 틀렸다, 토끼의 제안은 뒤에나 나오며, 토끼의 제안에 따라 동쪽 계단에 오른 것도 틀리다 혹은 알 수 없다는 걸 잘 판단했으면 충분히 맞힐 수 있었습니다.

: [좋은 독해·풀이 습관 : 모르는 건 한번만 더 생각해보고, 안 되면 넘어가서 다른 것을 판단해보기]

[출제요소] 보기-지문 연결해가며 읽어 지문 이해도 높이기

[출제요소] 선택지 '통해' 주의하며 의도, 선후관계, 인과관계 파악

[출제요소]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틀림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83 문법

[지문]

1. 햇빛이 너무 밝은데요.
2. 여명이 밝아 오면 그가 오리라.
3.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일이 잘 되기가 어렵다.
4.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5. 아니, 난 그 일만큼은 못하겠어.
6. 아니, 벌써요?
7. 너는 약속 시간에 매일같이 늦네.
8. 이미 늦었어. 우리 이제 마지막 기로에 서게 된 거야.

[문제]

- 밑줄 친 단어들의 **품사**는 무엇인가요? 의미와 기능까지 최대한 디테일하게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83 정답 및 해설

[정답]

1. 햇빛이 너무 밝은데요.

- **형용사** : 불빛 따위가 환하다. (나무)
- 지금 이 순간 빛의 상태를 말합니다. 정적인 느낌을 잡아보세요 (숲)

2. 여명이 밝아 오면 그가 오리라.

- **동사** :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 (나무)
- 시간의 움직임 및 변화, 즉 동적인 느낌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숲)

3. 첫 단추를 잘못 꿴면 일이 잘 되기가 어렵다.

- **부사** : 틀리거나 그릇되게 (나무)
- '꿴다'라는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으므로 부사입니다. (숲)

4.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 **명사** : 잘하지 못하여 그릇되게 한 일. 또는 옳지 못하게 한 일 (나무)
- 뒤에 보조사 '은'이 붙어 있네요. 앞에 명사 '자기'뒤에 생략된 관형격 조사 '의'까지 느껴지시면 더 좋구요. 앞에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뒤에 조사가 붙어있는 품사. 명사입니다. (숲)

5. 아니, 난 그 일만큼은 못하겠어.

- **부사** :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나무)
- 뒤에 오는 문장을 보면, 앞의 '아니'는 반대 의사표시로서의 부정 부사 '아니'로 보입니다. (숲)

6. 아니, 벌써요?

- **감탄사** : 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또는 의아스러울 때 하는 말 (나무)
- 뒤에 오는 '벌써요?'를 통해 놀랐거나 의아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감탄사'겠네요 (숲)

7. 너는 약속 시간에 매일같이 늦네.

- **동사** : 정해진 때보다 지나다. (나무)
- 솔직히 저는 암기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늦는 것, 약속시간이나 데드라인에 늦는 것은 '동사'입니다. 예외 암기!

8. 이미 늦었어. 우리 이제 마지막 기로에 서게 된 거야.

- **형용사** : 시간이 알맞을 때를 지나 있다. 또는 시기가 한창인 때를 지나 있다. (나무)
- 상황이 지금 다 끝난 '상태'를 나타낸다는 느낌으로 '형용사'라는 걸 잡아내 보세요. (숲)

[출제 요소] 품사통용 : 한 단어가 쓰임에 따라 둘 이상의 품사를 갖는 현상

[출제 요소] 숲과 나무. 단어 의미와 상황 맥락 둘 다 활용하여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답의 확신성을 높인다

[출제 요소] 예외 암기!

#84 비문학

[지문]

가게, 기업, 정부는 경제 주체로서 가게는 소비, 기업은 생산, 정부는 정책 결정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편익이란 어떤 선택을 할 때 얻는 이득으로, 기업의 판매 수입과 같은 금전적인 것이나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정신적 만족감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을 말한다. 비용이란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다.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명시적 비용은 그 선택을 할 때 화폐로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순편익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지는데, 한계편익은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며 한계비용은 그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볼펜을 1개 더 살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의 한계편익은 볼펜을 1개 더 사는 데에서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며, 한계비용은 볼펜을 1개 더 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

[보기] 지문 및 아래 상황을 문제 진위판단에 활용하기

3,000원을 가지고 가게에 간 갑은 각각 1,000원인 ○○ 과자와 △△ 음료수를 모두 사고 싶지만, 먼저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 선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과자 소비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아래 표와 같다. 비용에는 갑이 과자 소비로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해 반영했으며, 편익은 과자 소비의 만족감을 고려해 각 소비량만큼 과자를 사기 위해 갑이 지불할 마음이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나타냈다. 갑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은 모두 무시한다.

○○과자 소비량(개)	비용(원)	편익(원)
0	0	0
1	2,500	4,000
2	5,500	7,500
3	9,000	9,500

[문제] 진위 판단

1. 갑이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과자를 샀다면 음료수 1개 값이 남겠군.
정답 : (참 / 거짓)
2. 갑이 과자 소비에서 얻는 순편익은 과자를 3개 살 때보다 1개 살 때 더 작겠군.
정답 : (참 / 거짓)
3. 갑이 과자 소비량을 2개에서 3개로 늘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은 추가로 얻는 만족감보다 크겠군.
정답 : (참 / 거짓)
4. 갑이 과자 소비량을 0개에서 1개씩 늘릴 때마다 얻는 한계편익은 점점 늘어나겠군.
정답 : (참 / 거짓)
5. 갑이 과자를 사기 위해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는 과자를 구입하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작아지겠군.
정답 : (참 / 거짓)

※ 2020년 고2 9월 16 ~ 21번 비문학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84 정답 및 해설

[지문]

가게, 기업, 정부는 경제 주체로서 가게는 소비, 기업은 생산, 정부는 정책 결정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편익이란 어떤 선택을 할 때 얻는 이득으로, 기업의 판매 수입과 같은 금전적인 것이나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정신적 만족감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을 말한다. 비용이란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다.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명시적 비용은 그 선택을 할 때 화폐로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순편익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지는데, 한계편익은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며 한계비용은 그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볼펜을 1개 더 살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의 한계편익은 볼펜을 1개 더 사는 데에서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며, 한계비용은 볼펜을 1개 더 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

[보기] 지문 및 아래 상황을 문제 진위판단에 활용하기

3,000원을 가지고 가게에 간 갑은 각각 1,000원인 ○○ 과자와 △△ 음료수를 모두 사고 싶지만, 먼저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 선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과자 소비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아래 표와 같다. 비용에는 갑이 과자 소비로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해 반영했으며, 편익은 과자 소비의 만족감을 고려해 각 소비량만큼 과자를 사기 위해 갑이 지불할 마음이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나타냈다. 갑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은 모두 무시한다.

○○과자 소비량(개)	비용(원)	편익(원)
0	0	0
1	2,500	4,000
2	5,500	7,500
3	9,000	9,500

*기회비용 : 어떤 품목의 생산 비용을 그것 때문에 생산을 포기한 품목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

[현장독해]

- 가게는 소비, 기업은 생산, 정부는 정책 결정

- 합리적 선택 = '편익 - 비용 =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좋은 독해 습관 : 용어의 의미 나만의 표현으로 정리]

- 수입 = 금전적, 정신적 만족 = 비금전적

- 암묵적 비용 = 기회비용? 암묵적 비용 중에 가장 큰 게 기회비용이려나?

[좋은 기초 상식 : 경제 기초 상식, *기회비용]

vs 명시적 비용 = 직접 지불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구분]

- '한계편익 = 한계비용' -> 순편익 최대 = 합리적 선택(1문단)

[좋은 독해 습관 : 앞뒤문단 연결해 읽기, 지문-지문 동어반복]

- 아 그니까, 1개 더 살 때, 추가로 얻는 만족감 = 한계편익, 추가로 드는 비용 = 한계비용

[좋은 독해 습관 : 지문 혹은 나만의 예시로 용어 이해·정리]

- 암묵적 비용은 금전적 비용으로 반영, 명시적 비용은?

- 편익은 최대한이 금액

- 아 그러니까, 비용, 편익 저 표에 있는 게 전부라는 말이네. 머리 아프게 조건들 다 고려하지 말고 간단하게 2개만 보라는 것

[좋은 독해 습관 : 출제자의 의도 파악 중 자비로운 출제의도]

- 자 그러면, 과자 1개 살 때 순편익 1500원, 2개 살 때는 2000원, 3개 살 때는 500원. 2개 사는 게 순편익 가장 큼. 합리적.

- 한계 편익은 과자 소비량 0->1일 때 4000원, 1->2일 때 3500원, 2->3일 때 2000원. 점점 줄어드네

- 한계 비용은 과자 소비량 0->1일 때 2500원, 1->2일 때 3000원, 2->3일 때 3500원. 점점 늘어나네.

- 한계 편익이랑 한계 비용이 제일 비슷할 때는 1->2 3500원 3000원. 그럼 뭐 과자 2개, 음료수 1개 사야 합리적 선택이려나?

[좋은 풀이 습관 : 아무 생각 없이 보기 대충 읽고 바로 선택지로 넘어가지 말고, 보기에서 지문과 관련된 출제요소를 주관식으로 풀어보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냥 선택지 봐봤자 틀려]

[정답 및 해설] 1.참, 2.거짓, 3.참, 4.거짓, 5.거짓

1. 값이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과자를 샀다면 음료수 1개 값이 남겠군.
- 합리적 선택은 순편익이 가장 클 때이고, 과자 2개 살 때가 순편익이 2000원(7500-5500)으로 제일 큼. 3000원 있는데 과자 2개 사서 2000원 쓰면 1000원 남고, 이걸 음료수 1개 값. 참
2. 값이 과자 소비에서 얻는 순편익은 과자를 3개 살 때보다 1개 살 때 더 작겠군.
- '순편익 = 편익 - 비용'이라고 했으므로, 과자 소비량 1개일 때 1500원(4000 - 2500), 3개 일 때 500원(9500 - 9000). 1개일 때다 더 크므로 거짓
3. 값이 과자 소비량을 2개에서 3개로 늘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은 추가로 얻는 만족감보다 크겠군.
- 추가로 드는 비용은 한계비용, 추가로 얻는 만족감은 한계편익이네. 과자 소비량 2->3일 때, 한계비용 3500원(9000-5500), 한계편익 2000원(9500-7500). 한계비용이 더 크네. 참
4. 값이 과자 소비량을 0개에서 1개씩 늘릴 때마다 얻는 한계편익은 점점 늘어나겠군.
- 한계 편익은 과자 소비량 0->1일 때 4000원(4000-0), 1->2일 때 3500원(7500-4000), 2->3일 때 2000원(9500-7500). 점점 줄어드네. 거짓.

[잣팻 : 내가 지문·보기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간 내용이 출제자의 생각과 거의 완벽히 일치하는 경우]

5. 값이 과자를 사기 위해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는 과자를 구입하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작아지겠군.
- 과자를 사기 위해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 = 암묵적 비용이네. 암묵적 비용을 구하려면 표의 비용에서 명시적 비용을 빼야겠네. 명시적 비용은 과자 1개당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과자 구입 개수 1개 1500원(2500-1000), 2개 3500원(5500-2000), 3개 6000원(9000-3000). 점점 증가하네. 거짓.

[출제요소] 지문에 나온 개념을 지문 예시 혹은 나만의 예시를 들어 이해하고 정리하기

[출제요소] 출제자의 의도 파악

[출제요소] 주관식으로 풀기 : 보기 대충 보고 대충 선택지로 넘어가지 말고, 보기에서 지문과 관련된 출제 요소 스스로 풀어보고 넘어가기

※ '주관식으로 풀기'와 '잣팻'에 대하여

잣팻. 도박에서 한번 베팅으로 큰돈을 버는 경우, 영화에서 흥행에 크게 성공한 경우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내가 지문 및 보기를 읽으면서 했던 생각, 선택지를 보기 전에 했던 생각이 출제자의 표현과 사실상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경우에 전 '잣팻'이 터졌다고 표현합니다. 솔직히 운적인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거라고 마냥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과목의 어느 문제에서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평소에 출제자의 사고방식 및 출제요소를 디테일하게 분석하여, 출제자처럼 생각해보는 훈련을 꾸준히 하신다면, 수능 날 이런 '잣팻'이 과목 별로 한 두 개씩은 터질 것입니다. 이러면 좋은 성적을 못 받고 싶어도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머리 꼭대기에서 나를 가지고 노는 듯 했던, 태산과도 같아서 너무 무섭기만 했던 출제자가 한번 도전해볼만한 상대처럼 여겨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잣팻은 내 공부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자기확신의 증거로서, 출제자와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 긴장을 덜하게 만들어주고, 수도 없이 흔들리는 시험 순간에 자신을 다잡아줄 자신감의 원천이 되어 줄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들이 선택지를 보기 전에 주관식으로 사전에 풀 수 있는 유형들은 아닙니다. 다만, 주관식으로 풀어볼만한 것들은 주관식으로 풀어본 후에 선택지를 본다면, 그리고 해설지를 보며 출제자의 표현과 비교하여 최적화시켜 나간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했어야 출제자처럼 생각할 수 있었을 지를 연구한다면, 수능 당일 이런 '잣팻'이 이따금씩 터질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터질 것입니다. 좋은 풀이 습관인 주관식으로 풀기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출제자와 아예 다르게 생각하는 등, 잘 안 되고 어렵고 어색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한다면, 영어 주제·제목·요지·빈칸 등 추론 문제에서까지 주관식으로 풀기를 훈련한다면, 수능 날 한 두 개쯤은, 운 좋으면 한 5개씩도 '잣팻'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게 제가 서울대 정시 뚫었고, 이걸로 학생들이 전보다 더 똑똑해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85 멘토링

공부하면 좋은 이유2. 기회에도 자격이 있다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자격이 생긴다.

한번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전교 1등이고, 어느 집단에 들어가도 꼴리지 않을 만큼 잘나고 똑똑하다고 합시다. 애는 나중에 커서 뭘 해도 하긴 할 거라는 믿음이 갑니다. 그런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겼다고, 그걸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자식의 부모라면 별말 없이 빌려 주실 겁니다. 아니, 자신들이 평생 모은 재산의 일부를 한번 걸어서라도 투자해보는 건 어떨지까지 고민할 겁니다.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겠죠. 이 아이가 해낼 일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자신들이 더 도와줄 건 없는지도 따로 알아보고, 주변에 도움이 되어줄 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도 해주는 등,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요. 내 자식이 공부도 안하고, 성실하지도 않고, 머리도 안 좋아 보이고, 고작 30명 정도 되는 집단에서조차 중간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재가 커서 도대체 뭐가 될는지 늘 고민이죠. 그런데 이런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 생겼으니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런 자식의 부모라면, 애가 또 무슨 사고를 치려나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자식이니까 돈 날리는 건 상관없다 해도, 혹여나 이걸로 어디 이상한 데서 사고치진 않을까, 그러다 몸도 마음도 다치는 건 아닐까 우려됩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뭘 하려는 건지 물어나 보면, 구체적인 계획도 딱히 없어 보이는데, 이놈은 자기를 그저 의심만 한다면 맘 상해하고 서운해만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또 하나 남기죠.

두 가지 극명한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회에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는 사람이 투자자든, 회사 면접관이든, 직장 상사든, 카드발급 심사직원이든, 선배든, 친구든, 하다못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든, 그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직하고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세요.
자신이 똑똑하고 능력있음을 '평소'에 '증명'해두세요.

그러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의심과 걱정보다, 지지와 격려를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중·고등학생이,
당장 자신의 능력과 똑똑함을 증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그것은 공부이고 성적입니다.

공부가 싫어도, 성적에 당장 욕심이 없어도,
일단 공부를 해서 성적을 최대한 잘 받아두세요.

다 부질없을 것만 같은,
그저 귀찮고 싫기만 한 그 공부가, 그 성적이,

본인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기회를 한번이라도 더,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받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86 문학

[지문]

[가]

말에 내려 인가를 찾아가 보니
아낙네 문간에 나와 맞이하네.
띠집 처마 아래 손을 얹게 하고
나를 위해 밥과 반찬 내어오네.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는지
아침에 소 끌고 산에 올랐는데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
사방에 이웃이라고는 없고
닭과 개만 산기슭을 오르내린다.
숲 속에는 사나운 호랑이 많고
나물을 뜯어도 얼마 되지 않네.

- 김창협, [산민]

[나]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도 마침내 질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대강 해 두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구요.”

“다 되어 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 드려얹지요.”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가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 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임 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 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 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 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였다.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우정 지어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었다. 옥상 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예상 외로 옥상 일이 힘드나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정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레 그들이었다. 밤 여덟 시가 지나도록 잡역부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부러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못했으니까.

-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문제] [가]의 시적 화자가 남편에 대해, [나]의 ‘그’가 임 씨에 대해 느끼는 공통적인 정서는 무엇인가?

정답 : ()

#86 정답 및 해설

[지문]

[가]

말에 내려 인가를 찾아가 보니
 아낙네 문간에 나와 맞이하네.
 띠집 처마 아래 손을 얹게 하고
 나를 위해 밥과 반찬 내어오네.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는지
 아침에 소 끌고 산에 올랐는데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
 사방에 이웃이라고는 없고
 닭과 개만 산기슭을 오르내린다.
 숲 속에는 사나운 호랑이 많고
 나물을 뜯어도 얼마 되지 않네.

- 김창협, [산민]

[나]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도 마침내 질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대강 해 두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구요.”

“다 되어 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 드려야지요.”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가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 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임 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 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 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 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우정 지어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었다. 옥상 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예상 외로 옥상 일이 힘드나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정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레 그들이었다. 밤 여덟 시가 지나도록 작업부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부러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못했으니까.

-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현장독해]

- 내가 손님이고, 아낙네 있는 인가에서 밥 먹는 상황

[좋은 독해 습관 : 상황 파악]

- 남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네. 평지도 아니고 산을 일구니까 더 고생하네. 이래서 제목이 [산민]이구나

[좋은 독해 습관 : 시적 표현과 '제목' 연관짓기]

- 산이니까 사람도 없는 것.

- 산이니까 위험하고, 먹을 것도 없는

- 옥상 일 열심히 잘 해주나보네.

- 장인정신

[좋은 독해 습관 : 촌철살인, 상황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

- 임 씨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 특별함

- 장인정신

- 열심히 하는 척하는 거라고 생각

- 임 씨는 일류다.

[좋은 독해 습관 : 촌철살인, 상황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

- 시킨 쪽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 해주네.

[정답] 연민

- (가)에서 시적화자는 손님, 시적대상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시적화자이자 손님인 나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인 나는 산민 생활을 하는 이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적화자가 '연민'이라는 정서를 느낀다는 정답의 확실성을 높여줄 표현(나무)이 지문에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산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묘사하는 시적 상황(숲)이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나)에서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로 보입니다. 옥상 공사를 해주는 '임씨', 그걸 지켜보는 '아내', 아내의 '남편'이자 옥상 공사의 잡역부 노릇을 한 '남편'인 '그'의 내적 심리 및 정서까지 서술하고 있으니까요. 밑줄 다음 문장에서 남편인 '그'는 옥상 공사의 대가가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밖에 안 된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그'는 장인정신을 발휘하는 임 씨에 대해 '존경' 등의 정서도 느낄 수 있겠네요. (가)(나) 공통적 정서로는 '안타까움' 혹은 '연민' 정도로 답하면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87 문법

[지문]

1. 둘은 **서로** 친하게 지내왔다.
2.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서로**의 미래를 응원해주기로 하자
3. 머리가 **커서** 군대를 면제받던 시절이 있었다.
4. 너 이러다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5.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6. 개는 만날 때마다 **제가** 하는 일만 자랑하더라구요.

[문제]

- 밑줄 친 단어들의 **품사**는 무엇인가요? 의미와 기능까지 최대한 디테일하게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87 정답 및 해설

[정답]

1. 둘은 **서로** 친하게 지내왔다.

- **부사** : 관계를 이루는 둘 이상의 대상 사이에서, 각각 그 상대에 대하여. 또는 쌍방이 번갈아서(나무)
- 생략가능하며 부사어 '친하게'를 수식해주고 있으므로 '부사'로 보는 게 낫겠네요.(숲)

2.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서로**의 미래를 응원해주기로 하자

- **명사** : 짝을 이루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나무)
- 뒤에 관형격조사 '의'가 붙어있으므로 '명사'입니다.(숲)

3. 머리가 **커서** 군대를 면제받던 시절도 있었다.

- **형용사** :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나무)
- 머리의 상태를 서술해주고 있고, 영어로는 big으로 번역 가능하네요. 이밖에도 '머리가 커진다.'는 진행의 의미나 '머리가 커져라'는 명령의 의미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형용사네요.(숲)

4. 너 이러다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 **동사** :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다.(나무)
- 상태 자체를 서술해주기 보다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grow로 번역 가능하네요. 이밖에도 '얼른 커라' 등 명령형을 쓸 수 있으므로 동사입니다.(숲)

5.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 **1인칭 대명사** : 말하는 이가 뒷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주격 조사 '가'나 보격 조사 '가'가 붙으면 '제'가 된다.(나무)
- 3인칭 재귀 대명사로 동어반복할만한 다른 대상이 일단 이 문장 안에는 없습니다. 1인칭 대명사(숲)

6. 개는 만날 때마다 **제가** 하는 일만 자랑하더라고요.

- **3인칭 재귀 대명사** :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자기'보다 낮잡는 느낌을 준다. 주격 조사 '가'나 보격 조사 '가'가 붙으면 '제'가 된다.(나무)
- 동어반복, 즉 같은 의미인데 형태만 다른 '개'가 존재합니다. '개'는 3인칭이고,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니까 재귀대명사(숲)

[출제 요소] 품사통용 : 한 단어가 쓰임에 따라 둘 이상의 품사를 갖는 현상

[출제 요소] 숲과 나무. 단어 의미와 상황 맥락 둘 다 활용하여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답의 확신성을 높인다.

[출제 요소] 예외 암기!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안국어

#88 멘토링

공부하면 좋은 이유3. 공부 안 해도 되는 일이 없다

프로게이머들도 맵 지형·지물들 픽셀 단위까지 분석하고 외운답니다.
수십~수백 개에 달하는 시나리오 짜서 초단위로 타임라인 만들고,
같은편·적·건물·동선 등 수십 개 변수들이 만들어내는 수천 개의 관계들 중에
승리에 유의미한 요소들 찾아내어 자기 플레이를 최적화시킵니다.
이를 위해 게임 물리 엔진에 대한 지식까지도 공유하고,
수학자·통계학자까지도 동원되고, 고도화된 연산 프로그램까지 사용합니다.

장기적으로 통련하는 헬스·건강 유튜버 분들의 공통점은,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연구에 기반한 지식,
검증받은 제도권 전문가가 제시하는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든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관련 대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까지도 찾아보고,
그걸 원문으로 읽으려고 외국어 공부까지 하고,
그게 안 되면 수십만 원 돈을 따로 내가며 전문 번역가들에게 연구물 번역을 맡긴답니다.

대충 자기 경험이랑 뇌피셜에 기반하여
이게 맞는 운동이니 저게 맞는 식단이니 하고 떠들어대던 유튜버들,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과학적 연구 기반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저격당해 나락가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을 찾아보고자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고 시도해본다면,
누구나 그러한 지식에 접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신입생 안내 책자' 한번 찾아보세요.
학생도 논문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DBPIA 사이트 계정 등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을 겁니다.
고작 고등학생인데도, 여러분 옆의 누군가는 벌써부터 논문까지 참고해가며 공부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런 세상에서, 검증된 전문 지식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와 이해 없이는,
그 어떤 영역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개그맨·연예인은 그저 남들에게 웃음주고 돈 벌면 그만 아니냐구요?
어떻게 하면 많은 이들의 웃음을 유발할지 심리 서적까지 뒤져서 노하우 정리하고,
방송 심의 규정 다 숙지해서, 선 넘지 않는 건전한 웃음을 주겠다고 밤새가며 아이디어 회의하고,
신문·책 보며 사회 현상 철저히 관찰하고 트렌드 분석해서 웃음으로 승화시켜주시는 분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웃음 주는 것에 대한 공부만 하면 끝일까요?
국내 최정상급 MC인 강호동님은 세금 문제에 대한 본인의 지나친 무관심으로 인해,
탈세 혐의라는, 연예인으로서 어렵게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한순간에 날릴 뻔한 오해를 겪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직업, 하고자 하는 일에,
공부가 필요 없는 영역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분야를 알고 계시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
저도 제발 그런 일 하면서 편히 좀 살고 싶거든요.

#89 비문학

[지문]

우리는 한 분의 조상으로부터 퍼져 나온 단일 민족일까? 고대부터 고려 초에 이르기까지 대규모로 인구가 유입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또 거란, 몽골, 일본, 만주족 등의 대대적인 외침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고조선의 건국 시조로서의 단군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한민족 전체의 공통 조상으로서의 단군을 받드는 것은 옳지 않다. 각 성씨의 족보를 보더라도 자기 조상이 중국으로부터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귀화 성씨가 적지 않다. 또 한국의 토착 성씨인 김 씨나 박 씨를 보더라도 그 시조는 알에서 태어났지 단군의 후손임을 표방하지는 않는다. 이는 대부분의 족보가 처음 편찬된 조선 중기나 후기까지는 적어도 '단군'이라는 공통의 조상을 모신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었다는 증거가 된다. 또 엄격한 신분제가 유지된 전통 사회에서 천민과 지배층이 같은 할아버지의 자손이라는 의식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뻗어 나온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처음 출현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아무리 올려 잡아도 구한말(舊韓末)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이런 의식이 전 국민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일 것이다.

제국주의의 침탈과 분단을 겪은 20세기에 단일 민족 의식은 민족의 단결을 고취하고, 신분 의식 타파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아직도 단일 민족을 내세우는 것이 순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특히 이주노동자들보다 나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조선족 동포들의 처지를 보면, 그리고 출신에 따라 편을 가르고 차별하는 지역 감정을 떠올리면 같은 민족끼리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갈라진 민족의 통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겨레라고 외치고 싶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단일 민족임을 외쳐 왔지만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더 악화돼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유감스럽게도 다른 민족이라면 차별해도 괜찮다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 하나의 언어를 강하게 내세운 나치 독일은 600여 만 명의 유대인 학살과 주변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나아갔다. 물론 이런 가능성들이 늘 현재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일민족의식 속에는 분명 억압과 차별과 불관용이 숨어 있다.

[문제]

한민족 전체의 공통 조상으로서의 단군을 받드는 것은 옳지 않은 근거를 모두 쓰시오

정답 :

#89 정답 및 해설

[지문]

우리는 한 분의 조상으로부터 퍼져 나온 단일 민족일까? 고대부터 고려 초에 이르기까지 대규모로 인구가 유입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또 거란, 몽골, 일본, 만주족 등의 대대적인 외침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고조선의 건국 시조로서의 단군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한민족 전체의 공통 조상으로서의 단군을 받드는 것은 옳지 않다. 각 성씨의 족보를 보더라도 자기 조상이 중국으로부터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귀화 성씨가 적지 않다. 또 한국의 토착 성씨인 김 씨나 박 씨를 보더라도 그 시조는 알에서 태어났지 단군의 후손임을 표방하지는 않는다. 이는 대부분의 족보가 처음 편찬된 조선 중기나 후기까지는 적어도 '단군'이라는 공통의 조상을 모신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었다는 증거가 된다. 또 엄격한 신분제가 유지된 전통 사회에서 천민과 지배층이 같은 할아버지의 자손이라는 의식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뻗어 나온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처음 출현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아무리 올려 잡아도 구한말(舊韓末)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이런 의식이 전 국민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일 것이다.

제국주의의 침탈과 분단을 겪은 20세기에 단일 민족 의식은 민족의 단결을 고취하고, 신분 의식 타파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아직도 단일 민족을 내세우는 것이 순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특히 이주노동자들보다 나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조선족 동포들의 처지를 보면, 그리고 출신에 따라 편을 가르고 차별하는 지역 감정을 떠올리면 같은 민족끼리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갈라진 민족의 통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겨레라고 외치고 싶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단일 민족임을 외쳐 왔지만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더 악화돼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유감스럽게도 다른 민족이라면 차별해도 괜찮다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 하나의 언어를 강하게 내세운 나치 독일은 600여 만 명의 유대인 학살과 주변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나아갔다. 물론 이런 가능성들이 늘 현재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일민족의식 속에는 분명 억압과 차별과 불관용이 숨어 있다.

[현장 독해]

- '단일 민족'이 키워드. 인구 유입, 외부의 침략 얘기하는 거보니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좋은 독해 습관 : 키워드 파악, 글쓴이 의도 파악]

- 단군 할아버지가 조상인건 상식인데, 상식 비틀기 지문이네.

[좋은 독해 습관 : 밑줄 관련 내용 출제요소 한번 생각해보기]

- 중국에서도 오고,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공통 조상, 단일 민족은 아니다.

- 심지어 신분제까지 있어서 공통 조상, 단일 민족 의식 없다.

[좋은 독해 습관 : 문단 핵심 정리하고 넘어가기]

- 단일 민족은 최근에나 나온 의식이다

[좋은 독해 습관 : 문단 핵심 정리하고 넘어가기]

- 민족 단결 고취, 신분 의식 타파

- 조선족 동포 차별 타파, 지역 감정 타파 순기능

- 갈라진 민족 타파 순기능

- 통일, 한겨레=단일 민족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 위에 것들 다 단일 민족 장점 얘기하는 거네

[좋은 독해 습관 : 문단 핵심 정리하고 넘어가기]

- 다른 민족 차별

- 나치 독일

- 억압, 차별, 불관용

-> 단일 민족 단점 얘기하는 거네. 앞문단과 반대

[좋은 독해 습관 : 문단 핵심 정리하고 넘어가기]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구분 짓기]

[정답 및 해설] 한민족 전체의 공통 조상으로서의 단군을 받드는 것은 옳지 않은 근거를 모두 쓰시오

1. 자기 조상이 단군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도래했다는 성씨가 많기 때문이다
 2. 토착 성씨들도 단군이 조상임을 표방하지 않고 시조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기 때문이다
 3. 신분제 조선 사회에서 지배층이, 천민과 함께 단군을 공통 조상이라고 여기는 의식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 단군을 공통 조상으로서 받드는 단일 민족 의식은 구한말부터 생겨났기 때문이다

※ 상식이랑 충돌합니다. 어색함에 심지어 거부감마저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이겨내시고 글쓰기가 정의하고 서술한대로 답을 적어내셔야 합니다. 상식 비틀기, 일상어 의미 재정의는 2013년에도 나온 전통적인 출제요소이자, 2023학년도 수능에서도 출제된 딱딱딱한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도 더 지난 고1 교육청 기출임에도 들고 와봤습니다. 글쓰이의 의도된 사상이 문제를 푸는 수험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주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우려 역시 매우 오래되었음에도 계속 용인되어왔던 현상이라는 게 냉정한 사실입니다. 지문의 글쓰이, [보기]의 출제자는 신이고, 절대자이며, 믿어야 할 설명서라고 생각하면서, 수험생 자신의 상식과 뇌피셜은 이해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만 삼길 바랍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저해하고 획일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겠지만, 시험 점수라는 냉정하고도 현실적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90 문학

[보기]

1980년대에 창작된 이 시는 표면상 연애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담겨있다. 1행의 '네가 오기로 한'을 통해 시적 화자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지문]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문제] 진위판단

1. 설의적 표현을 통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2. 대화하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보여 주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3. '가슴 애리는 일'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데는 고통이 있음을 의미한다.
정답 : (참 / 거짓)
4. '밑줄'에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 2013년 고1 3월 40 ~ 42번 문학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90 정답 및 해설

[보기]

1980년대에 창작된 이 시는 표면상 연애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담겨있다. 1행의 '네가 오기로 한'을 통해 시적 화자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지문]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현장독해]

-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 '너'는 진정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긍정적 확신, 믿음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에서 지문과 연결지을 키워드 파악]
- 너 = 자유, 민주주의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 올 거라고 믿으니깐 기다림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 설렘
- 설의적 표현. 가슴 애리는 일이 없다. 즉,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이 가장 가슴 애린다.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의도파악]
- 열릴 때마다 미어캣처럼 쳐다보는거지
- 계속 안 오나 보네ㅠㅠ
- 내가 가고 말지.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 열망.
 [좋은 독해 습관 : 보기 내용 바탕으로 응용해서 지문 해석]
- 자유, 민주주의는 천천히 온다. 탄압, 독재의 역사?
- 내가 자유, 민주주의 쟁취하려고 간다

[정답 및 해설] 1.참, 2.거짓, 3.참, 4. 거짓

1. 설의적 표현을 통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설의적 표현 있습니다. 좋은 독해 습관대로 지문을 읽으면서 설의적 표현이 보이면, 습관처럼 평서형으로 바꾸어 그 의도를 파악하고 넘어갔다면 기억이 바로 나서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다고 맞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 '설의적 표현을 쓰면 반드시, 무조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 않느냐'는 소수론도 있습니다. 다만, 다수론은 수사 의문문이라는 질문의 형식은 '질문'이라는 그 자체의 형식적 특성으로 인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질문을 받으면 긴장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떠올려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일이 가슴 애리는 일'이라는 화자의 표현 의도에 대한 독자의 공감이 유도된다는 것이 다수론입니다.

2. 대화하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보여 주고 있다

- '대화 : [명사]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 핵심은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대화라는 겁니다. 이 시에서 시적 대상인 '너'는 아직 오지 않았고, '너'가 시적화자인 '나'에게 얘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 시적화자인 '나'가 시적대상인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진술이 적절해보이네요.

3. '가슴 애리는 일'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데는 고통이 있음을 의미한다.

- '애리다'는 허끝을 찌를 듯이 알알한 느낌, 상처나 살갓 따위가 찌르는 듯이 아픈, 마음이 몹시 고통스러운 등의 뜻을 가진 '아리다'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너(민주주의)를 기다리는 일이 가슴 아픈 일(고통스러운)이라고 하니 맞는 진술로 보입니다. (나무)
- 해당 표현 뒤에 보면 기다리는 '너'가 계속 오질 않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너는 오지 않는다고 하구요. 기다리는데 오지 않으니 답답하고 기다리다 지치는 상황 아닐까요. 그러다가 이젠 내가 너에게 간다고 하는 것이구요. 이런 상황상 '애리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숲)

4. '밑줄'에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 '다시 문이 닫힌다.'는 표현까지 밑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망감으로 보아야 적절합니다. 적어도 기대감 '고조'는 참일 수는 없습니다.

[출제요소] 보기-지문 동어반복

[출제요소] 설의적 표현 주의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91 문법

[지문]

1. 우리 **다섯** 달만에 보는거야.
2. 모두 해서 **다섯**이다.
3. **어제**만 해도 그런 얘기 없으셨잖아요.
4. **어제** 끝난 일은 다 잊고 오늘을 살아.
5. 말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6. 사람은 다 자기 **운명대로** 살아가는거야.

[문제] 쪼개서 원형파악

- 밑줄 친 단어들의 **품사**는 무엇인가요? 의미와 기능까지 최대한 디테일하게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만큼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게 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91 정답 및 해설

[정답]

1. 우리 다섯 달만에 보는거야

- **수관형사** : 넷에 하나를 더한 수의. (나무)

- (주로 고유어 수 뒤에 쓰여) 한 해를 열둘로 나눈 것 가운데 하나의 기간을 세는 단위인 의존명사 '달' 앞에서 달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관형사 중에서도 수를 나타내는 수관형사입니다. (숲)

2. 모두 해서 다섯이다

- **양수사** : 넷에 하나를 더한 수. (나무)

- 뒤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있네요. 조사가 붙는 품사 중에서도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겠네요. (숲)

3. 어제만 해도 그런 얘기 없으셨잖아요

- **명사** : 오늘의 바로 하루 전날. (나무)

- 뒤에 한정어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 '만'이 쓰였네요. 뒤에 조사가 붙는 품사는 '명사'겠죠 (숲)

4. 어제 끝난 일은 다 잊고 오늘을 살아.

- **부사** : 오늘의 바로 하루 전에. (나무)

- 동사 '끝나다'의 앞에서 동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겠네요. (숲)

* **끝난** : 명사 '끝'과 동사 '나다'로 이루어진 '끝이 나다'에서, 주격조사 '이'가 생략되어 이루어진 통사적 합성동사 '끝(이)나다'의 어간 '끝나-'에, 관형형 전성어미 '-니'이 붙어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하는 '끝난'이 되었습니다. '끝난'의 품사는 동사, 문장성분은 관형어입니다.

5. 말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 **의존명사** :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 (나무)

- 동사 '하다'의 어간 '하'에 관형형 전성어미 '는'이 붙어 관형어 역할을 하는 '하는' 뒤에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로'는 명사이며, 혼자 쓰일 수 없기에 '의존명사'입니다. (숲)

* 주의할 점은 명사 '대'에 조사 '로'가 붙은 것이 아니라, '대로' 이 자체가 의존명사라는 것입니다.

6. 사람은 다 자기 운명대로 살아가는거야

- **보조사** : (체언 뒤에 붙어)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나무)

- '운명'이라는 명사 체언 뒤에 붙어 그 뜻을 더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입니다. (숲)

[출제 요소] 품사통용 : 한 단어가 쓰임에 따라 둘 이상의 품사를 갖는 현상

[출제 요소] 숲과 나무. 단어 의미와 상황 맥락 둘 다 활용하여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답의 확실성을 높인다.

[출제 요소] 예외 암기!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안국어

#92 멘토링

공부하면 좋은 이유4.

더 많은 걸, 새로운 걸 요구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예전처럼 누구나 일할 기회가 있는 여유로운 시절이라면,
공부 굳이 계속할 필요 없다, 더할 필요 없다고 말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당신이 속하길 원하는 집단에 들어가려면 하나만 잘해서는 부족할 게 뻔합니다.

'나는 함께 하면 좋을 만큼 똑똑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필요한 걸 얼른 배워서 대처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합니다.

'나 이것도 잘하는데, 저것도 잘하고, 심지어 똑똑하기까지 해서,

분명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필요한 순간이 있을 텐데 나 안 뽑아요?'라는 어필이 되어야

본인이 원하는 집단에 겨우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집단이라 여겨지는 법조계조차도,

그 어렵다는 로스쿨 입학·졸업시험, 변호사시험 합격이,

고작 법조계에 속할 입장권·시민권을 받는 것일 뿐,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해내고자 하는 일에, 미래에 되고자 하는 직업에,

공부는 필요 없고, 뭘 더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은 개소리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공부하지 않도록,

무언가를 더 배우고자 하지 않도록,

현재에 안주하게 만드는 그 달콤한 유혹들을 심히 경계하세요.

여유가 없어진 세상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 많은 걸, 새로운 걸 공부하지 않고 그저 안주하기만 해도

인생이 알아서 그냥 굴러가고 삶이 저절로 나아지는 그런 기적은 없더라구요

(이런 사례가 있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매 순간의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남기고,

평생에 걸쳐 공부하며,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게 서른 살 즈음에서 제가 깨달은 인생입니다.

수험생분들께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공부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쉬운 공부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계속 그때가 좋을 때라고 하시는 거구요.

평생공부의 세계인 인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시길 응원합니다.
어차피 평생 공부할거라면,
어려서 한 살이라도 어려서 머리 잘 굴러갈 때,
많이 해두는 게 나중에 공부할 때 더 편할 테니까요.

또한 어떤 한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더라도,
결국 똑똑한 사람·남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생각보다 빨리 한계·편견·위기에 부딪힐 수 있는 냉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본인이 하던 거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살아남기가 힘들 수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때 얼른 다른 걸 배워서 그것도 잘 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이 직감적으로 느낀 그 위기감이 실존하는 위기가 맞으니까요.
그 순간 머뭇거리지 마시고 다시 공부 시작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걸 잘하면서도, 다른 것·새로운 것까지 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으며, 지금 현재도 여전히 적고, 앞으로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연하게도,
이렇게 둘 다 잘하는 사람들, 새로운 걸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만 고집하는 사람보다 더 인정해줍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은,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앞서 말한 '둘 다 잘하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조차 필수이고 기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좋아하던 것, 원래 하고자 했던 것도 잘하고,
다른 것도 얼른 배워서 잘하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멋진 사람이 되어 봅시다.
남들보다 똑똑해져서 무엇을 하든 남들보다 못하지는 않는 사람이 되어 보자구요.

하루하루 파이팅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0 나가기 전에 : 제작 방향성

문제나 풀자

저는 독해법·풀이법·학습법·멘토링 등을 칼럼 형식으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에 지쳐 버렸습니다. 좋은 독해 습관, 좋은 풀이 습관들을 그저 소개만 해서는, 아무리 쉽고 재밌게 얘기하더라도 한계가 있더군요. 제가 여전히 많이 부족한가봅니다.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은 고치고, 좋은 방법들은 최대한 많이 자기 습관으로 만드는 그 실질적 행동 방법. 그 실천 지향적인 **실질적 액션 플랜**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국어 고수들의 그렇게 잘나고 멋들어진 풀이를, 결국 학생 스스로가 시험 순간에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그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 자료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전, 좋은 방법들을 그저 소개만 하고 있을 시간에, **학생들이 한 문제라도 더 풀게 하고자** 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한 문제를 푸는 학생조차도, '좋은 자극, 좋은 긴장감'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를 엄선하고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최고난도·최다오답 문제뿐만 아니라,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도 가끔씩 실수하는 문제, 누구나 한번쯤은 틀려가며 배우는 문제, **좋은 습관대로 푼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 등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풀어봤는데 틀려서, 독이 바짝 오른 상태에서 해설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좋은 독해법·풀이법·학습법·멘토링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학생들에게도, 제게도, 시간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더 나으리라 믿습니다.

도전하여 내 것으로 만들자

이 자료의 문제들은, 국어 기초 개념, 즉 '고전 어휘 및 고전 독해법'과 '문법 개념' 등을 1회독 한 학생.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효과], 이해항 선생님의 [국어의 기술]과 같은 기초 개념서를 1회독 이상 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도전 가능한 것들**입니다. 저는 수업 설명회에서도 학생·학부모님들과 이 문제들을 함께 푹니다. 수업 커리큘럼·계획서·분석 자료를 그럴듯하게 발표하는 것만큼이나, 눈앞에서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큰 공감을 얻더군요. 중학생·고1·고2·고3·N수·학부모 등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어, 이 자료는 내가 풀 게 아니라고 편견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다 맞힐 수 있는 실력을 갖추자는 마인드로, 해당 자료의 문제들을 다 맞히고 막힘없이 설명해내는 것에 도전해** 보세요.

스스로 설명해보자

활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제 풀고 해설 읽는 거죠. 다만, 남들보다 질적으로 높게 이 자료를 활용하여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설명해보는데 집중하세요. 스스로에게 정답과 근거를 설명해본 후 해설과 비교해보세요. 하루하루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은 안하게 되고, 좋은 습관은 해내게 될 겁니다.

굳이 이 자료를 복습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보다는, 여기서 알게 된 좋은 습관들과 방법들을 평소 국어 문제 풀 때 적용해보려고 하세요. 또는 몇 달 혹은 1년 후에, 똑같은 문제를 스스로에게 다시 설명해보면서 자신이 성장했는지를 점검해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해설에서 공감 가는 부분, 스스로 잘 안됐던 부분은 시간차를 두고 몇 번이고 다시 복습하면 더욱 좋기야 하겠지요. **반복의 지루함을 인내하고 복습하는 자가 결국 인생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에 어색했던 것을,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만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복습 잘 못하거든요. 복습만 잘 해도 대한민국 90%는 이길 수 있습니다.

색다르게 해보자

일반적인 국어 문제들을 풀다 지쳐 토할 것 같을 때, 공부하기는 너무 싫는데 그래도 뭔가는 해야 마음이 편할 때, 그럴 때마다 가끔씩 들춰보고 또 몇 문제 풀어 보세요. 문제도 유형도 영역도 형식도 평소 풀던 것들과는 좀 다르겠지만, 인생에 걸쳐서 도움이 될 좋은 독해 습관과 좋은 풀이 습관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벌을 받더라